

연구보고서

2024

05

# 2023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연령대별 위험관리

오병국·변혜원·이소양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 목 차

|                                  |    |
|----------------------------------|----|
| • 요약                             | 1  |
| I. 서론                            | 2  |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
| 2. 연구내용 및 방법                     | 3  |
| II. 설문조사 방법                      | 5  |
| 1. 조사설계                          | 5  |
| 2. 조사개요                          | 6  |
| 3. 조사표본 특성                       | 7  |
| III. 설문조사 결과                     | 10 |
| 1. 위험요인 및 영향에 대한 판단              | 10 |
| 2.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                | 12 |
| 3. 보험가입 여부 및 미가입 사유              | 39 |
| IV. 보험가입 및 보장격차 분석               | 55 |
| 1. 보험가입 결정요인 분석                  | 55 |
| 2. 보장격차 정량분석: 건강, 은퇴준비 및 자연재해 위험 | 61 |
| 3. 보험가입과 상대적 보장격차분석              | 66 |
| V. 결론                            | 70 |
| • 참고문헌                           | 73 |
| • 부록                             | 77 |

## 표 차례

|  |    |
|--|----|
| 〈표 II-1〉 조사 방법   | 7  |
| 〈표 II-2〉 응답자 특성  | 8  |
| 〈표 III-1〉 사회 전체 관점에서 현재 가장 큰 위험요소                        | 11 |
| 〈표 III-2〉 평소 가장 큰 걱정거리                                   | 11 |
| 〈표 III-3〉 평소 신체적 건강에 대한 염려정도                             | 12 |
| 〈표 III-4〉 평소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 13 |
| 〈표 III-5〉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다중 응답)                 | 14 |
| 〈표 III-6〉 평소 정신적 건강에 대한 염려정도                             | 14 |
| 〈표 III-7〉 평소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 15 |
| 〈표 III-8〉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다중 응답)                 | 15 |
| 〈표 III-9〉 향후 자신의 간병 가능성에 대한 염려정도                         | 16 |
| 〈표 III-10〉 자신의 간병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 17 |
| 〈표 III-11〉 자신의 간병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다중 응답)                | 17 |
| 〈표 III-12〉 향후 가족간병 부담 증가에 대한 염려정도                        | 18 |
| 〈표 III-13〉 가족간병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 19 |
| 〈표 III-14〉 가족의 간병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다중 응답)                | 19 |
| 〈표 III-15〉 은퇴 준비에 대한 염려정도(미은퇴자)                          | 20 |
| 〈표 III-16〉 은퇴 예상 연령(미은퇴자)                                | 21 |
| 〈표 III-17〉 은퇴에 대한 대비정도(미은퇴자)                             | 21 |
| 〈표 III-18〉 은퇴에 대한 대비방법(미은퇴자)                             | 22 |
| 〈표 III-19〉 자신의 사망에 대한 대비정도                               | 23 |
| 〈표 III-20〉 사망 관련 준비 여부                                   | 23 |
| 〈표 III-21〉 실직에 대한 염려정도                                   | 24 |
| 〈표 III-22〉 실직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 25 |
| 〈표 III-23〉 실직과 관련된 위험 대비방법(다중 응답)                        | 25 |
| 〈표 III-24〉 폐업에 대한 염려정도                                   | 26 |
| 〈표 III-25〉 폐업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 27 |
| 〈표 III-26〉 폐업과 관련된 위험 대비방법(다중 응답)                        | 27 |
| 〈표 III-27〉 일상생활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정도 | 28 |

|   |    |
|---|----|
| 〈표 III-28〉 일상생활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 29 |
| 〈표 III-29〉 일상생활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다중 응답) | 29 |
| 〈표 III-30〉 재산상의 손해(자연재해, 화재, 도난 등)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염려정도            | 30 |
| 〈표 III-31〉 재산상의 손해(자연재해, 화재, 도난 등)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 31 |
| 〈표 III-32〉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다중 응답)                    | 31 |
| 〈표 III-33〉 사이버사고(개인정보유출,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염려정도        | 32 |
| 〈표 III-34〉 사이버사고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 33 |
| 〈표 III-35〉 사이버사고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다중 응답)                      | 33 |
| 〈표 III-36〉 염려정도 및 대비정도: 건강 및 간병위험                             | 34 |
| 〈표 III-37〉 염려정도 및 대비정도: 은퇴준비 및 사망위험                           | 34 |
| 〈표 III-38〉 염려정도 및 대비정도: 소득흐름 및 재산손해위험                         | 35 |
| 〈표 III-39〉 염려정도 대비 대비정도 비율: 전체 위험                             | 37 |
| 〈표 III-40〉 연령대별 위험 대비방법: 건강 및 간병위험(1순위)                       | 37 |
| 〈표 III-41〉 연령대별 위험 대비방법: 은퇴준비 및 소득흐름 위험(1순위)                  | 38 |
| 〈표 III-42〉 연령대별 위험 대비방법: 소득흐름 및 재산손해위험(1순위)                   | 38 |
| 〈표 III-43〉 실손의료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 41 |
| 〈표 III-44〉 질병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 41 |
| 〈표 III-45〉 사망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 42 |
| 〈표 III-46〉 상해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 43 |
| 〈표 III-47〉 본인을 위한 간병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 44 |
| 〈표 III-48〉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 45 |
| 〈표 III-49〉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 인지 여부                                 | 46 |
| 〈표 III-50〉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 준비 정도                                 | 46 |
| 〈표 III-51〉 연금 보유 여부(중복응답)                                     | 47 |
| 〈표 III-52〉 개인연금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 48 |
| 〈표 III-53〉 주택연금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 49 |

|  |    |
|--|----|
| 〈표 III-54〉 여행자보험 미가입 경험 사유(1순위 응답)                       | 51 |
| 〈표 III-55〉 집보험 및 주택화재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 52 |
| 〈표 III-56〉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풍수재위험 특약 등 미가입 사유<br>(1순위 응답) | 52 |
| 〈표 III-57〉 임의자동차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 53 |
| 〈표 III-58〉 사이버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 54 |
| 〈표 IV-1〉 보험가입 프로빗(Probit) 분석 결과: 건강, 사망 및 간병위험           | 57 |
| 〈표 IV-2〉 연금 및 보험가입 프로빗(Probit) 분석 결과: 은퇴준비 위험            | 59 |
| 〈표 IV-3〉 보험가입 프로빗(Probit) 분석 결과: 재산손해위험                  | 60 |
| 〈표 IV-4〉 실손의료보험 보장격차                                     | 62 |
| 〈표 IV-5〉 국민·퇴직·개인연금 보장격차                                 | 63 |
| 〈표 IV-6〉 국민연금 보장격차                                       | 64 |
| 〈표 IV-7〉 퇴직연금 보장격차                                       | 64 |
| 〈표 IV-8〉 개인연금 보장격차                                       | 65 |
| 〈표 IV-9〉 자연재해로 인해 살고 계신 집에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한 설명              | 66 |
| 〈표 IV-10〉 보험 보장격차 발생 원인                                  | 67 |



## 그림 차례

|  |    |
|--|----|
| 〈그림 II-1〉 설문 구성                        | 6  |
| 〈그림 III-1〉 연령대별 건강 관련 보험상품 보유 여부       | 40 |
| 〈그림 III-2〉 연령대별 간병보험 보유 여부             | 44 |
| 〈그림 III-3〉 연령대별 재산손해관련 보험가입 경험 및 보유 여부 | 50 |



## **2023 Insurance Consumer Behavior Study: Risk Management by Age Group**

This study conducts a survey on risk attitudes and risk behaviors, awareness and preparedness levels for various risks, and methods of preparedness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risk management by age group,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appropriate risk management by age group through analysis of insurance coverage and coverage gaps based on insurance coverage and reasons for uninsured.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age groups with the highest levels of concern about individual risks are not necessarily the ones with the highest levels of preparedness for those risks, suggesting that there may be factors that prevent certain age groups from being fully prepared despite their high levels of concern about individual risk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each risk, we find that even in risk areas where insurance could cover losses, the top response for the risk management method was not insurance for most age groups. Concerning insurance coverage, health-related risks are more likely to be covered than other risk areas, and those aged 50 and older are more likely to have personal pensions than retirement pensions. Finally, for insurance products covering health, mortality, and caregiving risks, we find that improving the favorability of the product among the older age groups or improving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product among the younger age groups could reduce the relative insurance protection gap. In addition, if we improve the awareness of the products among the younger age groups, we could reduce the relative insurance protection gap in personal pensions and voluntary auto insurance.



보험소비자를 포함한 개인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인적 위험, 물리적 위험, 그리고 배상책임 위험 등과 같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개인과 개인이 속한 가계에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에도 직·간접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본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행동 성향, 각종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정도 등을 파악해 잠재적인 위험 노출 수준을 확인하고, 적절한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연령대별 위험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을 위해 위험에 대한 태도 및 위험행동, 각종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수준, 대비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험가입 유무 및 미가입 사유에 기반한 보험가입 및 보장격차 분석을 통해 연령대별 적절한 위험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별 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다고 해도 반드시 해당 위험에 대한 대비수준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에 따라 개별 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아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는 요인이 존재함을 시사했다. 각 위험에 대한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연령대에 상관없이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위험영역일지라도 해당 위험에 대한 우선적인 대비방법이 보험가입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험가입 현황의 경우 응답자 중 건강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 비율이 다른 위험영역에 비해 높았으며, 50대 이상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대부분 연령대에서 재산손해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건강, 사망 및 간병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품에 대한 호감도를 제고하거나,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품에 대한 인식도 부족을 개선하는 것이 보험가입을 통한 상대적 보장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인연금 및 임의자동차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한 젊은 연령층의 인식도를 개선할 수 있다면 보험가입을 통한 상대적 보장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1. 연구배경 및 목적

소비자를 포함한 개인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기사망, 장수, 질병, 상해 등의 인적 위험, 재산손해와 같은 물리적 위험 그리고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끼친 피해와 관련된 배상책임 위험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위험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이 개인에게 발생할 경우 개인은 물론 개인이 속한 가계에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에도 직·간접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sup>1)</sup> 따라서 개인은 위험발생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안정적 삶의 영위를 위해 본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행동 성향, 각종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정도 등을 파악하여 잠재적인 위험 노출 수준을 확인하고, 적절한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베이비붐세대(1955~1964년생), MZ세대(1980~2004년생) 등에 대한 사회적 영향과 관심이 늘어나면서 특정 연령집단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생활, 밀레니얼세대(1980~1994년생)의 재무관리, 투자성향, 문화 및 소비생활 등에 대한 국내 조사나 분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손재희·정인영(2022)은 교육환경, 디지털기술의 발달, 거시경제 상황, 사회인식,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MZ세대와 이전 세대 간의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영호·정나라(2020)는 투자 관련 조사를 통해 MZ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거나, 투자에 있어서 ESG 요인을 고려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2018)는 은퇴하거나 은퇴가 가까운 연령에 해당하는 베이비붐세대 또는 X세대를 대상으로 은퇴 후 생활 변화, 은퇴 전후 소득 및 지출, 재취업 등을 조사하였다. 게다가 특정 연령집단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연령대별 금융상품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도 존재하는데, 김진성(2020)은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연령대별 예금, 보험, 펀드·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경제활동과 밀접한 연령대에 따라 이들 상품의 보유 현황에 차이가

---

1) 이경룡(2009)

있음을 제시하였다.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한 인식과 관리에도 연령대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sup>2)</sup> 구체적으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강위험과 사망위험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연령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근로시기에서 은퇴시기에 가까워지는 개인일수록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노후 대비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근로 연령대에 있는 개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부채상환, 실직, 폐업, 배상책임, 사이버 사고 위험 등에 대한 인식이 높을 수 있다. 그밖에 여행 등 여가활동 참여, 주택 및 자동차 등의 재산 보유 여부,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도시지역 거주 및 선호도 등에도 연령대별 차이가 존재해 관련 위험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보험상품 구매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sup>3)</sup>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면서 얻는 재무적 손실을 경제적으로 보장해 개인의 위험관리를 도울 수 있는 금융상품인 보험 활용 유무와 미활용 사유에도 연령대별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연령대별 위험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을 위해 위험에 대한 태도 및 위험행동, 각종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보험가입 유무 및 미가입 사유에 기반한 보험가입 및 보장격차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연령대별 적절한 위험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먼저 만 19~69세에 해당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및 위험 행동, 위험요인 및 영향에 대한 판단, 건강·간병·은퇴·사망·소득흐름·재산소유 등에 관한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정도를 파악한다. 아울러 조사 대상에 포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가입 유무 및 미가입 사유를 바탕으로 보험가입 결정요인 및 보장격차 분석을 시도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령에 따른 위험에 대한 인식 및 관리의 변화는 경우에 따라 생애주기시설에서의 역U자형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음(Nolte and Hanoch 2023)

3) Viscusi(1995); Zhou-Richter et al.(2010)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설문조사 설계 방식 및 개요에 대해 정리한다. III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IV장에서는 보험가입 결정요인과 보험보장격차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 보험소비자의 적절한 위험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1. 조사설계

설문 문항은 크게 위험에 대한 태도 및 위험행동, 위험요인 및 영향에 대한 판단, 건강, 간병, 은퇴, 사망, 소득 흐름, 재산손해 관련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정도, 관련 보험상품 가입 여부 및 경험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일반적인 위험감수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GPS나 SOEP와 유사한 질문을 통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위험감수 정도를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는 질문, 한국노동패널에서 차용한 복권 선택 질문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위험회피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Barsky et al.(1997)과 권오익 외(2021)가 사용한 직장선택 관련 문항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의 위험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흡연, 주식투자, 가상자산투자 여부도 질의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설문 문항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위험태도나 위험행동 등은 공통으로 조사하되, 세부 위험분야별 위험인식 및 대비, 관련 보험상품 보유 및 가입경험 설문은 건강 및 간병, 은퇴 및 사망, 소득 흐름 및 재산손해로 나누어 세 개의 설문조사를 별도로 수행하였다.

한편 보험상품 가입 여부 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 전에 내보험찾아줌<sup>4)</sup> 링크를 제공하고 본인인증 후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할 것을 안내하였다. 아울러 은퇴 및 사망 분야 설문 대상자 중 비은퇴자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sup>5)</sup> 링크를 제공하고, 가입한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계약 정보 및 예시 연금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였다. 내연금조회 신규가입자의 연금정보 집적을 위해서 3영업일 소요되어, 회원가입 후 3영업일 후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주일 뒤에 2차 조사를 하여 관련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4) 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

5) 금융감독원 내연금조회 홈페이지

〈그림 II-1〉 설문 구성

|   |   |  |
|---|---|--|
| 응답자 선정 질문   |   |  |
| 성별, 출생연도, 거주지역, 종사상 지위  |   |  |
| 위험에 대한 태도   |   |  |
| 주관적 판단, 복권 선택, 위험회피도, 위험행동(흡연, 주식투자, 가상자산 투자)   |   |  |
| 거시적 위험요인 및 영향에 대한 판단  |   |  |
| 사회전체의 관점에서의 위험요소(cf. World Economic Forum)  |   |  |
| 건강 및 간병   | 은퇴 및 사망   | 소득 흐름 및 재산손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li> <li>건강위험 관련 보험상품 보유 및 가입경험</li> <li>간병에 대한 인식 및 대비</li> <li>간병 관련 보험상품 및 가입경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퇴 관련 인식 및 대비(은퇴자, 미은퇴자)</li> <li>은퇴 관련 상품 보유 및 가입경험</li> <li>사망준비 관련 인식 및 대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 흐름 관련 인식 및 대비(근로자, 자영업자)</li> <li>소득 흐름 관련 보험상품 보유 및 가입경험</li> <li>재산손해 관련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li> <li>재산손해 관련 보험상품 보유 및 가입경험</li> </ul> |
| 금융자산 보유   |   |  |
| 총자산, 금융자산, 부채   |   |  |
| 기본 정보   |   |  |
| 혼인상태, 가족 수, 자녀, 학력, 소득  |   |  |

## 2. 조사개요

본 조사는 만 19세에서 69세 사이 성인 남녀 5,7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거주지역, 성별, 연령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다만, 기본적인 특성,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요인 및 영향에 대한 판단은 5,700명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 관련해서는 위험영역을 건강 및 간병, 은퇴 및 사망, 소득흐름 및 재산손해 이상 3가지 영역에 나누어 각 영역당 랜덤하게 배정된 1,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sup>6)</sup> 예를 들어, 건강 및 간병 관련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 관련 설문 영역은 1,900명에게만 응답받았다.

〈표 II-1〉 조사 방법

| 구분      | 온라인 조사   |
|---------|--|
| 조사 대상   |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
| 표본 크기   | 총 5,700명(유효표본)<br>건강위험 및 간병: 1,900명<br>은퇴 및 사망: 1,900명<br>소득 흐름 및 재산손해: 1,900명 |
| 자료수집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
| 표본추출 방법 | 거주지역, 성별, 연령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법   |
| 최대 허용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1.1%   |
| 조사 기간   | 2023년 8월 7일~8월 30일   |
| 조사 기관   | (주)엠브레인퍼블릭   |

### 3. 조사표본 특성

조사표본 5,700명의 기본적인 특성은 〈표 II-2〉에 요약되어 있다. 남성이 51%, 여성이 49%로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높게 표집되었으며, 연령별로는 50대(23.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거주지역으로는 인천/경기지역이 가장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동거가족 수는 4인이 28.6%로 가장 높았으며, 1인은 15.8%였다. 응답자의 57%는 결혼을 한 기혼자였으며, 62.1%는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상용 근로자였다. 고용원을 두거나 혹은 두지 않은 자영업자는 8.3%를 차지했다. 교육 수준은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응답자가 54.4%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월평균 세후 소득수준은 200~300만 원 미만이라고 한 응답자가 24.9%로 가장 높았으며, 8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3.9%에 불과했다.

6) 건강 및 간병, 은퇴 및 사망, 소득흐름 및 재산손해 이상 3개 영역에 해당된 조사 표본의 특성은 부록 I에 제시하였음. 서로 다른 조사 표본 간의 응답자 특성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II-2〉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         | 구분       | 사례 수  | 구성 비율 |
|---------|----------|-------|-------|
| 성별      | 남성       | 2,907 | 51.0  |
|         | 여성       | 2,793 | 49.0  |
| 연령별     | 20대 이하   | 1,065 | 18.7  |
|         | 30대      | 1,032 | 18.1  |
|         | 40대      | 1,251 | 21.9  |
|         | 50대      | 1,356 | 23.8  |
|         | 60대      | 996   | 17.5  |
| 거주지역    | 서울       | 1,092 | 19.2  |
|         | 부산/울산/경남 | 849   | 14.9  |
|         | 대구/경북    | 537   | 9.4   |
|         | 인천/경기    | 1,939 | 34.0  |
|         | 광주/전라    | 524   | 9.2   |
|         | 대전/세종/충청 | 564   | 9.9   |
|         | 강원/제주    | 195   | 3.4   |
| 동거 가족 수 | 1인       | 903   | 15.8  |
|         | 2인       | 1,223 | 21.5  |
|         | 3인       | 1,617 | 28.4  |
|         | 4인       | 1,631 | 28.6  |
|         | 5인 이상    | 326   | 0.6   |
| 혼인상태    | 미혼       | 2,127 | 37.3  |
|         | 기혼       | 3,248 | 57.0  |
|         | 별거 중     | 14    | 0.2   |
|         | 이혼       | 236   | 4.1   |
|         | 사별       | 44    | 0.8   |
|         | 무응답      | 31    | 0.5   |

〈표 II-2〉 계속

|                  | 구분            | 사례 수  | 구성 비율 |
|------------------|---------------|-------|-------|
| 종사상 지위           | 상용근로자         | 3,542 | 62.1  |
|                  | 임시, 일용근로자     | 423   | 7.4   |
|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136   | 2.4   |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339   | 5.9   |
|                  | 무급가족 종사자      | 37    | 0.6   |
|                  | 기타 종사자        | 92    | 1.6   |
|                  | 주부            | 439   | 7.7   |
|                  | 기타            | 692   | 12.1  |
| 교육 수준            | 중학교 이하        | 80    | 1.4   |
|                  | 고등학교          | 954   | 16.7  |
|                  | 대학교(4년제 미만)   | 889   | 15.6  |
|                  | 대학교(4년제 이상)   | 3,102 | 54.4  |
|                  | 대학원 석사        | 564   | 9.9   |
|                  | 대학원 박사 이상     | 111   | 1.9   |
| 월평균 개인소득<br>(세후) | 200만 원 미만     | 1,259 | 22.1  |
|                  | 200~300만 원 미만 | 1,417 | 24.9  |
|                  | 300~400만 원 미만 | 1,145 | 20.1  |
|                  | 400~500만 원 미만 | 769   | 13.5  |
|                  | 500~600만 원 미만 | 445   | 7.8   |
|                  | 600~700만 원 미만 | 262   | 4.6   |
|                  | 700~800만 원 미만 | 178   | 3.1   |
|                  | 800만 원 이상     | 225   | 3.9   |

### Ⅲ

## 설문조사 결과

본 장에서는 위험요인 및 영향에 대한 판단,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보험가입 및 미가입 사유에 대해 분석한다.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할 때 연령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연령대별 집단을 응답자의 연령대에 기반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로 구분하여 정의했다.

### 1. 위험요인 및 영향에 대한 판단

설문 대상자의 사회 전체 관점에서 현재 가장 큰 위험요소에 대한 판단을 조사하기 위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전문가들이 선정한 글로벌 위험요소 16개를 포함하여 이중 가장 큰 위험요소부터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받았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가 생각하는 위험요소의 1순위는 이상기후였으며, 2순위는 전염병, 3순위는 정신건강 악화였다. 연령별·세대별 분포에서도 모두 1순위는 이상기후였으나, 2순위 및 3순위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30대의 경우 다른 응답자들이 전염병으로 응답한 것과 다르게 정신건강 악화가 2순위였다. 3순위의 경우 20대 이하 및 40대는 정신건강 악화, 30대는 전염병, 50대는 기후변화 방지 조치의 실패, 60대는 사회통합 붕괴로 조사되었다.

〈표 III-1〉 사회 전체 관점에서 현재 가장 큰 위험요소

(단위: 명)

| 구분  | 1위     | 2위   | 3위      | 응답자 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이상기후 | 전염병     | 정신건강 악화           | 1,065 |
|     | 30대    | 이상기후 | 정신건강 악화 | 전염병               | 1,032 |
|     | 40대    | 이상기후 | 전염병     | 정신건강 악화           | 1,251 |
|     | 50대    | 이상기후 | 전염병     | 기후변화 방지<br>조치의 실패 | 1,356 |
|     | 60대    | 이상기후 | 전염병     | 사회통합 붕괴           | 996   |
| 전체  | 이상기후   | 전염병  | 정신건강 악화 | 5,700             |       |

주: 위험요소에는 이상기후, 생계위기, 기후변화방지 조치의 실패, 사회통합붕괴, 전염병, 정신건강 악화, 사이버보안 실패, 부채위기, 디지털 불평등, 자산버블붕괴, 생물다양성 손실, 천연자원 위기, 비자발적 이민, 지역경제적 대립, 부정적 기술발달, 지역정치적 자원 논쟁을 포함하여 설문하였으며 가장 큰 위험요소부터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받음

다음으로 신체건강, 정신건강, 부채상환, 실직 또는 폐업, 노후준비, 사망준비, 가족간병, 배상책임, 재산상의 손해, 사이버피해와 같은 위험에 대해 평소에 가장 큰 걱정하는 순서대로 3개까지 설문하였다.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1순위는 신체건강, 2순위는 노후준비, 3순위는 실직 또는 폐업으로 개인의 건강과 경제 상태에 관한 위험에 대한 걱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1순위 걱정거리는 20대 이하, 30대 및 60대의 경우 신체건강, 40대 및 50대의 경우 노후준비였다. 30대보다 은퇴시기에 가까워지는 40대 및 50대는 은퇴 후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거리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1~2순위보다 덜 걱정하는 3순위 경우 20대 이하 및 60대는 정신건강, 30대 및 50대는 실직 또는 폐업, 40대는 부채상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평소 가장 큰 걱정거리

(단위: 명)

| 구분  | 1위     | 2위   | 3위       | 응답자 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신체건강 | 노후준비     | 정신건강     | 1,065 |
|     | 30대    | 신체건강 | 노후준비     | 실직 또는 폐업 | 1,032 |
|     | 40대    | 노후준비 | 신체건강     | 부채상환     | 1,251 |
|     | 50대    | 노후준비 | 신체건강     | 실직 또는 폐업 | 1,356 |
|     | 60대    | 신체건강 | 노후준비     | 정신건강     | 996   |
| 전체  | 신체건강   | 노후준비 | 실직 또는 폐업 | 5,700    |       |

주: 평소 가장 큰 걱정거리에는 신체건강, 정신건강(우울증, 치매 등), 부채상환, 실직 또는 폐업, 노후준비, 사망준비, 가족간병, 배상책임, 재산상의 손해(자연재해, 화재, 도난 등), 사이버피해(보이스피싱, 사이버 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를 포함하여 가장 큰 걱정거리부터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받음

## 2.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

### 가. 건강위험 및 간병

#### 1) 신체적 건강

평소에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염려정도는 6점 척도로 응답받았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4.20이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의 염려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대 이하의 염려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염려정도에 대한 연령대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sup>7)</sup>

〈표 III-3〉 평소 신체적 건강에 대한 염려정도

(단위: %, 명)

| 구분  | 1            | 2   | 3    | 4    | 5    | 6    | 평균<br>점수 | 응답자<br>수    |     |
|-----|--------------|-----|------|------|------|------|----------|-------------|-----|
|     | -----> 매우 걱정 |     |      |      |      |      |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2.5 | 7.6  | 18.6 | 37.7 | 25.6 | 7.9      | 4.00        | 355 |
|     | 30대          | 0.6 | 7.0  | 14.0 | 34.6 | 33.4 | 10.5     | 4.25        | 344 |
|     | 40대          | 0.2 | 4.8  | 12.9 | 40.8 | 31.7 | 9.6      | <b>4.28</b> | 417 |
|     | 50대          | 1.3 | 4.6  | 14.8 | 36.5 | 33.6 | 9.1      | 4.24        | 452 |
|     | 60대          | 1.2 | 6.9  | 14.5 | 32.5 | 36.1 | 8.7      | 4.22        | 332 |
| 전체  | 1.2          | 6.1 | 14.9 | 36.6 | 32.1 | 9.2  | 4.20     | 1,900       |     |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1(전혀 걱정되지 않음)에서 6(매우 걱정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신체적 건강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3.97\*\*\*

신체적 건강에 대한 염려정도와 더불어 관련된 위험 대비수준에 대한 정도도 조사하였다.<sup>8)</sup> 전체 응답자의 6점 척도 기준 평균 대비정도의 점수는 3.68이었다. 조사 결과 30대

7) 본 장에서 연령대별 평균 차이는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해 검정했으며, 검정 통계량(F-값)과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기호(\*\*\* 1% 수준, \*\* 5% 수준, \*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를 각 결과표의 주에 추가하였음

8) 본 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위험에 대한 대비수준에 대한 정도는 위험에 대한 응답자의 객관적인 준비 상황이라기보다 위험 대비수준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에 가까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의 대비정도가 가장 높았으나, 40대 및 60대의 대비정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대 이하의 대비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Ⅲ-4〉 평소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단위: %, 명)

| 구분  | 1             | 2    | 3    | 4    | 5    | 6    | 평균<br>점수 | 응답자<br>수    |     |
|-----|---------------|------|------|------|------|------|----------|-------------|-----|
|     | -----> 충분히 준비 |      |      |      |      |      |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2.5  | 13.8 | 25.9 | 40.6 | 14.4 | 2.8      | 3.59        | 355 |
|     | 30대           | 2.6  | 11.6 | 23.0 | 39.0 | 18.9 | 4.9      | <b>3.75</b> | 344 |
|     | 40대           | 2.4  | 8.9  | 23.5 | 47.5 | 15.6 | 2.2      | 3.71        | 417 |
|     | 50대           | 2.2  | 15.0 | 22.8 | 38.3 | 19.0 | 2.7      | 3.65        | 452 |
|     | 60대           | 2.7  | 12.3 | 21.1 | 40.4 | 21.4 | 2.1      | 3.72        | 332 |
| 전체  | 2.5           | 12.4 | 23.3 | 41.2 | 17.8 | 2.9  | 3.68     | 1,900       |     |

-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어느 정도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준비하지 못함)에서 6(충분히 준비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가 증가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1.29

다음으로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으로 보험가입,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및 영양제 섭취, 정기건강검진, 의료비용 마련을 위한 저축, 기타를 포함해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응답자에 한정하여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응답받았으며, 조사 결과 20대는 규칙적인 운동, 30대 및 40대는 보험가입, 60대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신체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젊은 연령층과 여가활동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고연령층은 규칙적인 운동 등 신체활동으로 관련 위험에 주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 경제활동 층인 중·장년층은 보험상품을 활용해 관련 위험에 주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5〉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다중 응답)

(단위: %, 명)

| 구분  | 보험가입        | 규칙적인 운동     | 건강한 식습관, 영양제 섭취 | 정기 건강검진 | 의료비용 마련을 위한 저축 | 기타   | 응답자 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56.6        | <b>61.3</b>     | 50.9    | 37.3           | 22.3 | 0.7   | 346 |
|     | 30대         | <b>71.3</b> | 54.6            | 57.0    | 56.1           | 19.1 | 0.8   | 335 |
|     | 40대         | <b>69.8</b> | 54.5            | 52.6    | 65.6           | 18.9 | 1.7   | 407 |
|     | 50대         | <b>68.3</b> | 62.7            | 64.3    | 65.4           | 16.7 | 0.6   | 442 |
|     | 60대         | 57.3        | <b>71.5</b>     | 71.2    | 69.3           | 18.9 | 0.5   | 323 |
| 전체  | <b>65.1</b> | 60.7        | 59.1            | 59.2    | 19.1           | 1.8  | 1,853 |     |

## 2) 정신적 건강

평소 정신적 건강에 대한 염려정도도 6점 척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3.22이며, 30대 응답자의 염려정도가 가장 높았는데, 20대 응답자의 염려정도도 30대 응답자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높았다. 60대 응답자의 염려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젊은 연령층일수록 정신적 건강에 대한 염려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II-6〉 평소 정신적 건강에 대한 염려정도

(단위: %, 명)

| 구분  | 1            | 2    | 3    | 4    | 5    | 6    | 평균 점수 | 응답자 수       |     |
|-----|--------------|------|------|------|------|------|-------|-------------|-----|
|     | -----> 매우 걱정 |      |      |      |      |      |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12.7 | 16.1 | 14.6 | 30.7 | 19.2 | 6.8   | 3.48        | 355 |
|     | 30대          | 10.8 | 18.9 | 16.9 | 27.3 | 16.0 | 10.2  | <b>3.49</b> | 344 |
|     | 40대          | 11.0 | 22.8 | 18.0 | 28.5 | 15.1 | 4.6   | 3.28        | 417 |
|     | 50대          | 14.8 | 25.7 | 19.7 | 23.2 | 13.3 | 3.3   | 3.04        | 452 |
|     | 60대          | 19.0 | 30.4 | 17.5 | 20.8 | 9.0  | 3.3   | 2.80        | 332 |
| 전체  | 13.6         | 22.8 | 17.5 | 26.1 | 14.5 | 5.5  | 3.22  | 1,900       |     |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정신적 건강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걱정되지 않음)에서 6(매우 걱정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정신적 건강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15.28\*\*\*

전체 응답자의 평소 정신적 건강에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를 6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3.18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의 대비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40대의 대비정도가 가장 낮았다. 연령대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II-7〉 평소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단위: %, 명)

| 구분  | 1             | 2    | 3    | 4    | 5    | 6    | 평균<br>점수 | 응답자<br>수    |     |
|-----|---------------|------|------|------|------|------|----------|-------------|-----|
|     | -----> 충분히 준비 |      |      |      |      |      |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12.1 | 22.8 | 23.9 | 24.5 | 11.8 | 4.8      | 3.15        | 355 |
|     | 30대           | 11.0 | 20.6 | 26.5 | 27.3 | 12.2 | 2.3      | 3.16        | 344 |
|     | 40대           | 11.5 | 20.4 | 30.7 | 25.2 | 9.6  | 2.6      | 3.09        | 417 |
|     | 50대           | 8.2  | 25.0 | 26.1 | 26.3 | 11.3 | 3.1      | 3.17        | 452 |
|     | 60대           | 7.5  | 18.1 | 25.0 | 33.7 | 13.3 | 2.4      | <b>3.34</b> | 332 |
| 전체  | 10.1          | 21.6 | 26.6 | 27.2 | 11.5 | 3.1  | 3.18     | 1,900       |     |

-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어느 정도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준비하지 못함)에서 6(충분히 준비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가 증가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2.00\*

평소 정신적 건강에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의 대비방법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중복응답을 허용한 조사 결과, 대부분 연령대에서 명상을 통한 위험대비가 가장 높았으나, 60대의 경우 지역사회 참여 및 동호회 활동을 통한 위험대비 비중이 가장 높았다.

〈표 III-8〉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다중 응답)

(단위: %, 명)

| 구분  | 명상          | 지역사회<br>참여,<br>동호회<br>활동 | 종교활동        | 약 처방 | 심리<br>상담 | 기타   | 응답자<br>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b>40.1</b>              | 22.4        | 15.4 | 8.7      | 10.9 | 30.1     | 346 |
|     | 30대         | <b>38.9</b>              | 25.5        | 15.7 | 14.7     | 15.7 | 29.7     | 335 |
|     | 40대         | <b>42.5</b>              | 23.3        | 20.1 | 8.7      | 8.1  | 21.7     | 407 |
|     | 50대         | <b>36.9</b>              | 32.0        | 23.1 | 8.7      | 3.9  | 22.7     | 442 |
|     | 60대         | 29.6                     | <b>41.0</b> | 29.3 | 10.4     | 3.6  | 18.2     | 323 |
| 전체  | <b>37.7</b> | 28.8                     | 20.8        | 10.1 | 8.1      | 24.3 | 1,900    |     |

주: “어떤 방법으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 3) 자신의 간병

자신의 간병에 대한 염려정도는 조사 결과, 50대 응답자의 염려정도가 가장 높다고 나타났으나, 60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간병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II-9〉 향후 자신의 간병 가능성에 대한 염려정도

(단위: %, 명)

| 구분  | 1            | 2   | 3    | 4    | 5    | 6    | 평균<br>점수 | 응답자<br>수    |     |
|-----|--------------|-----|------|------|------|------|----------|-------------|-----|
|     | -----> 매우 걱정 |     |      |      |      |      |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7.9 | 10.7 | 17.7 | 31.8 | 21.7 | 10.1     | 3.79        | 355 |
|     | 30대          | 3.5 | 14.8 | 13.7 | 25.3 | 27.9 | 14.8     | 4.04        | 344 |
|     | 40대          | 1.9 | 8.6  | 13.7 | 29.5 | 31.4 | 14.9     | 4.24        | 417 |
|     | 50대          | 3.1 | 6.4  | 11.9 | 31.6 | 32.5 | 14.4     | <b>4.27</b> | 452 |
|     | 60대          | 1.5 | 8.4  | 14.2 | 30.7 | 28.9 | 16.3     | 4.26        | 332 |
| 전체  | 3.5          | 9.6 | 14.1 | 29.9 | 28.8 | 14.1 | 4.13     | 1,900       |     |

- 주: 1) “귀하께서는 향후 자신의 간병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걱정되지 않음)에서 6(매우 걱정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자신의 간병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9.67\*\*\*

다음으로 자신의 간병과 관련된 위협에 대해 설문하였다. 자신의 간병에 대한 대비와 관련해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이하 순으로 대비하고 있는 가능성이 작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관련 위협에 대한 대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Ⅲ-10〉 자신의 간병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단위: %, 명)

| 구분  | 1             | 2    | 3    | 4    | 5    | 6   | 평균<br>점수 | 응답자<br>수    |     |
|-----|---------------|------|------|------|------|-----|----------|-------------|-----|
|     | -----> 충분히 준비 |      |      |      |      |     |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23.9 | 26.0 | 25.7 | 19.3 | 4.9 | 0.3      | 2.56        | 327 |
|     | 30대           | 19.6 | 27.1 | 25.6 | 19.3 | 6.6 | 1.8      | 2.72        | 332 |
|     | 40대           | 16.6 | 23.2 | 25.2 | 26.4 | 7.8 | 0.7      | 2.88        | 409 |
|     | 50대           | 13.7 | 25.3 | 24.9 | 26.3 | 9.6 | 0.2      | 2.93        | 438 |
|     | 60대           | 11.9 | 25.4 | 27.2 | 25.1 | 9.8 | 0.6      | <b>2.97</b> | 327 |
| 전체  | 16.9          | 25.3 | 25.6 | 23.6 | 7.9  | 0.7 | 2.82     | 1,900       |     |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귀하의 간병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준비하지 못함)에서 6(충분히 준비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가 증가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6.66\*\*\*

자신의 간병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에 관해 위험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40대 이상부터는 대부분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치매 또는 간병보험 같은 민영보험을 활용한 위험대비 비중도 대략 20% 내외로 개인저축을 통한 위험대비보다는 낮지만, 요양시설 검색을 통한 위험대비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다만, 20대 이하 응답자의 경우엔 간병비 마련을 위한 저축이 가장 높은 위험대비 방법으로 응답하였다.

〈표 Ⅲ-11〉 자신의 간병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다중 응답)

(단위: %, 명)

| 구분  | 장기<br>요양<br>보험 | 간병비<br>마련을<br>위한<br>저축 | 치매<br>또는<br>간병<br>보험 | 요양<br>시설<br>검색 | 전문<br>돌봄<br>서비스<br>검색 | 간병<br>전문가<br>상담 | 기타  | 응답자<br>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36.9                   | <b>45.8</b>          | 13.7           | 9.6                   | 7.6             | 4.4 | 13.7     | 249 |
|     | 30대            | <b>53.9</b>            | 51.7                 | 17.2           | 13.9                  | 15.7            | 4.5 | 5.2      | 267 |
|     | 40대            | <b>65.1</b>            | 37.2                 | 19.1           | 12.0                  | 10.3            | 0.9 | 3.2      | 341 |
|     | 50대            | <b>67.7</b>            | 37.6                 | 22.5           | 18.5                  | 11.9            | 1.3 | 5.3      | 378 |
|     | 60대            | <b>67.0</b>            | 37.2                 | 23.3           | 15.6                  | 16.7            | 4.5 | 3.8      | 288 |
| 전체  | <b>59.6</b>    | 41.2                   | 19.5                 | 14.2           | 12.4                  | 2.9             | 5.9 | 1,523    |     |

주: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간병과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 4) 가족간병

앞서 살펴본 응답자 본인의 간병에 대하여 향후 가족간병을 예상하는 응답자에 한하여 가족의 간병 가능성에 대한 염려정도도 조사하였다. 연령별로는 50대, 40대, 60대, 30대, 20대 이하 순으로 염려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혹은 배우자에 대한 간병 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는 40~50대가 가족의 간병 가능성에 대한 염려정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응답자 표본 수가 128명에 불과해 조사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Ⅲ-12〉 향후 가족간병 부담 증가에 대한 염려정도

(단위: %, 명)

| 구분  | 1            | 2   | 3    | 4    | 5    | 6    | 평균 점수 | 응답자 수       |    |
|-----|--------------|-----|------|------|------|------|-------|-------------|----|
|     | -----> 매우 걱정 |     |      |      |      |      |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0.0 | 16.7 | 16.7 | 50.0 | 16.7 | 0.0   | 3.67        | 6  |
|     | 30대          | 0.0 | 6.7  | 0.0  | 46.7 | 6.7  | 40.0  | 4.73        | 15 |
|     | 40대          | 5.3 | 0.0  | 5.3  | 21.1 | 26.3 | 42.1  | 4.89        | 19 |
|     | 50대          | 0.0 | 1.8  | 3.5  | 17.5 | 45.6 | 31.6  | <b>5.02</b> | 57 |
|     | 60대          | 0.0 | 9.7  | 0.0  | 29.0 | 25.8 | 35.5  | 4.77        | 31 |
| 전체  | 0.8          | 4.7 | 3.1  | 25.8 | 32.0 | 33.6 | 4.84  | 128         |    |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가족간병 부담 증가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걱정되지 않음)에서 6(매우 걱정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가족의 간병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2.16\*

가족간병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를 조사한 결과, 20대 이하, 50대, 60대, 40대, 30대 순으로 대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대 이하의 경우 응답자 수가 6명에 불과해 표본 대표성과 결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연령대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Ⅲ-13〉 가족간병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단위: %, 명)

| 구분  | 1             | 2    | 3    | 4    | 5    | 6    | 평균<br>점수 | 응답자<br>수    |    |
|-----|---------------|------|------|------|------|------|----------|-------------|----|
|     | -----> 충분히 준비 |      |      |      |      |      |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0.0  | 16.7 | 33.3 | 16.7 | 16.7 | 16.7     | <b>3.83</b> | 6  |
|     | 30대           | 33.3 | 20.0 | 13.3 | 33.3 | 0.0  | 0.0      | 2.47        | 15 |
|     | 40대           | 21.1 | 31.6 | 26.3 | 5.3  | 10.5 | 5.3      | 2.68        | 19 |
|     | 50대           | 14.0 | 26.3 | 21.1 | 26.3 | 8.8  | 3.5      | 3.00        | 57 |
|     | 60대           | 12.9 | 22.6 | 25.8 | 32.3 | 6.5  | 0.0      | 2.97        | 31 |
| 전체  | 16.4          | 25.0 | 22.7 | 25.0 | 7.8  | 3.1  | 2.92     | 128         |    |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가족간병 부담 증가와 관련된 위험에 어느 정도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준비하지 못함)에서 6(충분히 준비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가 증가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1.38

가족의 간병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으로는 20대 이하는 간병비 마련을 위한 저축, 30대, 40대 및 60대는 장기요양보험, 50대는 간병비 마련을 위한 저축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매 또는 간병보험의 민간보험 가입을 통한 위험 대비는 모든 연령대에서 20% 미만의 응답자가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표 Ⅲ-14〉 가족의 간병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다중 응답)

(단위: %, 명)

| 구분  | 장기<br>요양<br>보험 | 간병비<br>마련을<br>위한<br>저축 | 치매<br>또는<br>간병<br>보험 | 전문<br>돌봄<br>서비스<br>검색 | 간병<br>전문가<br>상담 | 직접<br>간병<br>하기<br>위한<br>교육 및<br>훈련 | 기타   | 응답자<br>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33.3                   | <b>66.7</b>          | 16.7                  | 16.7            | 0.0                                | 16.7 | 0.0      | 6  |
|     | 30대            | <b>80.0</b>            | 60.0                 | 10.0                  | 10.0            | 0.0                                | 20.0 | 0.0      | 10 |
|     | 40대            | <b>40.0</b>            | <b>40.0</b>          | 13.3                  | 13.3            | 0.0                                | 6.7  | 26.7     | 15 |
|     | 50대            | 24.5                   | <b>59.2</b>          | 10.2                  | 32.7            | 10.2                               | 16.3 | 6.1      | 49 |
|     | 60대            | <b>55.6</b>            | 40.7                 | 18.5                  | 22.2            | 14.8                               | 14.8 | 0.0      | 27 |
| 전체  | 40.2           | <b>52.3</b>            | 13.1                 | 24.3                  | 8.4             | 15.0                               | 6.5  | 107      |    |

주: “어떤 방법으로 가족간병과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 나. 은퇴

은퇴상태에 있지 않은 1,670명의 미은퇴자에 대해 은퇴 준비에 대한 염려정도를 조사하였다.<sup>9)</sup> 미은퇴자 중에서 법정정년연령인 60세 이상인 60대 응답자도 16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종사하는 직업에서 정한 정년연령 혹은 본인의 의사 등으로 계속 근무하여 은퇴하지 않은 응답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결과, 법정정년연령인 60세에 가까운 50대보다 40대의 염려정도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II-15〉 은퇴 준비에 대한 염려정도(미은퇴자)

(단위: %, 명)

| 구분  | 1            | 2   | 3    | 4    | 5    | 6    | 평균<br>점수 | 응답자<br>수    |     |
|-----|--------------|-----|------|------|------|------|----------|-------------|-----|
|     | -----> 매우 걱정 |     |      |      |      |      |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4.5 | 14.4 | 16.6 | 33.5 | 20.6 | 10.4     | 3.83        | 355 |
|     | 30대          | 3.8 | 9.4  | 14.1 | 26.2 | 27.6 | 18.8     | 4.21        | 340 |
|     | 40대          | 1.0 | 4.6  | 10.0 | 27.1 | 37.4 | 19.8     | <b>4.55</b> | 409 |
|     | 50대          | 0.2 | 5.4  | 15.1 | 25.5 | 35.1 | 18.6     | 4.46        | 404 |
|     | 60대          | 2.5 | 9.3  | 18.5 | 22.8 | 29.6 | 17.3     | 4.20        | 162 |
| 전체  | 2.3          | 8.3 | 14.3 | 27.5 | 30.5 | 17.1 | 4.27     | 1,670       |     |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엔 은퇴 준비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걱정되지 않음)에서 6(매우 걱정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은퇴준비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19.23\*\*\*

미은퇴자의 은퇴 예상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은퇴시기에 가깝지 않은 20대 이하, 30대, 40대의 평균 은퇴 예상 연령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령대별 은퇴 예상 연령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9) 미은퇴자가 아닌 은퇴자(230명)의 은퇴 사유 및 은퇴 생활 등에 관한 조사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음



〈표 Ⅲ-16〉 은퇴 예상 연령(미은퇴자)

(단위: %, 명)

| 구분  |        | 59세 이하 | 60~64세 | 65~69세 | 70~74세 | 75세 이상 | 평균 연령        | 응답자 수 |
|-----|--------|--------|--------|--------|--------|--------|--------------|-------|
| 연령대 | 20대 이하 | 21.4   | 33.5   | 27.6   | 14.4   | 3.1    | 61.39        | 355   |
|     | 30대    | 24.7   | 28.8   | 28.2   | 14.1   | 4.1    | 61.36        | 340   |
|     | 40대    | 18.3   | 38.4   | 27.4   | 13.4   | 2.4    | 61.85        | 409   |
|     | 50대    | 11.1   | 36.4   | 34.9   | 14.6   | 3.0    | 63.44        | 404   |
|     | 60대    | 0.0    | 24.1   | 34.0   | 29.6   | 12.3   | <b>67.27</b> | 162   |
| 전체  |        | 16.8   | 33.5   | 30.1   | 15.6   | 4.0    | 62.56        | 1,670 |

주: 평균차이 검정 F-값: 11.35\*\*\*

미은퇴자의 은퇴에 대한 대비정도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나이가 높을수록 은퇴에 대한 대비정도가 높다고 응답하는 성향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별 은퇴에 대한 대비정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Ⅲ-17〉 은퇴에 대한 대비정도(미은퇴자)

(단위: %, 명)

| 구분  |        | 1             | 2    | 3    | 4    | 5    | 6   | 평균 점수       | 응답자 수 |
|-----|--------|---------------|------|------|------|------|-----|-------------|-------|
|     |        | -----> 충분히 준비 |      |      |      |      |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19.7          | 27.6 | 23.4 | 23.1 | 4.8  | 1.4 | 2.70        | 355   |
|     | 30대    | 21.2          | 20.3 | 22.1 | 28.8 | 5.6  | 2.1 | 2.84        | 340   |
|     | 40대    | 14.4          | 24.7 | 23.0 | 28.6 | 8.3  | 1.0 | 2.95        | 409   |
|     | 50대    | 11.4          | 21.8 | 19.1 | 35.6 | 11.1 | 1.0 | 3.16        | 404   |
|     | 60대    | 8.6           | 19.8 | 19.8 | 35.2 | 12.3 | 4.3 | <b>3.36</b> | 162   |
| 전체  |        | 15.6          | 23.2 | 21.6 | 29.8 | 8.1  | 1.6 | 2.96        | 1,670 |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엔 은퇴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  
 2) 1(전혀 준비하지 못함)에서 6(충분히 준비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가 증가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11.35\*\*\*

미은퇴자의 향후 은퇴에 대한 대비방법을 공적연금, 사적연금, 예금·적금·저축성보험, 주식·채권, 수익증권, 부동산, 자녀에 대한 투자, 기타를 포함해 조사하였다. 모든 연령대에

서 국민연금을 통한 대비가 가장 높았으나, 60대를 제외한 50대 이하 자의 예금·적금·저축성보험의 금융상품을 이용한 대비방법도 50%에 근접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50대의 개인연금을 이용한 은퇴 대비도 47.2% 비율로 나타났다. 다만, 주택연금을 이용한 은퇴 대비는 10% 내외로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8〉 은퇴에 대한 대비방법(미은퇴자)

(단위: %, 명)

| 구분          | 국민<br>연금    | 퇴직<br>연금    | 개인<br>연금 | 주택<br>연금 | 예금·<br>적금·<br>저축<br>성<br>보험 | 주식·<br>채권 | 수익<br>증권 | 부동<br>산 | 자녀<br>에<br>대한<br>투자 | 기타  | 응답<br>자 수 |     |
|-------------|-------------|-------------|----------|----------|-----------------------------|-----------|----------|---------|---------------------|-----|-----------|-----|
| 연<br>령<br>대 | 20대<br>이하   | <b>58.6</b> | 32.3     | 27.7     | 7.0                         | 47.7      | 35.4     | 7.0     | 13.3                | 0.7 | 1.8       | 249 |
|             | 30대         | <b>72.4</b> | 41.0     | 38.8     | 4.9                         | 48.9      | 39.2     | 6.3     | 23.1                | 0.4 | 1.9       | 267 |
|             | 40대         | <b>79.4</b> | 36.6     | 39.7     | 11.1                        | 48.6      | 36.6     | 6.0     | 35.4                | 2.6 | 2.0       | 341 |
|             | 50대         | <b>86.3</b> | 41.6     | 47.2     | 8.1                         | 48.6      | 36.9     | 6.7     | 31.3                | 3.6 | 1.4       | 378 |
|             | 60대         | <b>77.0</b> | 33.8     | 39.2     | 12.8                        | 41.9      | 23.6     | 1.4     | 25.7                | 2.7 | 4.1       | 288 |
| 전체          | <b>75.4</b> | 37.5        | 39.0     | 8.5      | 47.8                        | 35.6      | 6.0      | 26.5    | 2.1                 | 2.0 | 1,523     |     |

주: “어떤 방법으로 은퇴 후 소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 다. 사망

자신의 사망에 대한 대비정도를 조사하였는데, 응답자의 사망에 대한 대비정도의 평균 점수는 2.60으로서 중간척도점수인 3.00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연령이 높을수록 사망에 대한 대비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II-19〉 자신의 사망에 대한 대비정도

(단위: %, 명)

| 구분  | 1             | 2    | 3    | 4    | 5    | 6    | 평균<br>점수 | 응답자<br>수    |     |
|-----|---------------|------|------|------|------|------|----------|-------------|-----|
|     | -----> 충분히 준비 |      |      |      |      |      |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34.4 | 29.6 | 16.1 | 14.4 | 4.8  | 0.8      | 2.28        | 355 |
|     | 30대           | 36.0 | 23.3 | 15.7 | 19.5 | 5.2  | 0.3      | 2.35        | 344 |
|     | 40대           | 27.1 | 25.2 | 23.0 | 18.5 | 5.3  | 1.0      | 2.53        | 417 |
|     | 50대           | 17.7 | 27.9 | 21.2 | 24.8 | 7.3  | 1.1      | 2.79        | 452 |
|     | 60대           | 16.0 | 19.0 | 24.4 | 27.7 | 11.7 | 1.2      | <b>3.04</b> | 332 |
| 전체  | 25.9          | 25.2 | 20.2 | 21.0 | 6.8  | 0.9  | 2.60     | 1,900       |     |

- 주: 1) “귀하께서는 자신의 사망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걱정되지 않음)에서 6(매우 걱정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자신의 사망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21.58\*\*\*

사망 관련 준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사망 관련 준비 방법에 대해 ‘유언장’, ‘사전의료 지시서 또는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중요한 문서들의 정리 및 보관’, ‘장례 준비 및 비용 마련’, ‘사후 디지털자산 정리 방법 마련’을 포함해 설문하였다. 대부분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준비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 예를 들어 전체 응답자의 사망 관련 준비 방법 중 가장 높게 응답된 ‘장례 준비 및 비용 마련’을 통해 사망을 준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8%에 불과했다. 다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례 준비 및 비용 마련을 통해 사망을 준비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체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0〉 사망 관련 준비 여부

(단위: %, 명)

| 구분  | 유언장    | 사전 의료 지시서 또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 중요한 문서들의 정리 및 보관 | 장례 준비 및 비용 마련 | 사후 디지털자산 정리 방법 마련 | 응답자 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6.2                       | 4.6              | <b>8.4</b>    | 6.8               | 6.2   | 344 |
|     | 30대    | 2.9                       | 3.1              | <b>6.0</b>    | 4.9               | 3.3   | 337 |
|     | 40대    | 2.3                       | 4.0              | 6.1           | <b>8.0</b>        | 3.8   | 411 |
|     | 50대    | 2.4                       | 4.8              | 5.4           | <b>10.2</b>       | 2.7   | 448 |
|     | 60대    | 2.9                       | 9.7              | 9.8           | <b>19.9</b>       | 5.0   | 328 |
| 전체  | 3.3    | 5.1                       | 7.0              | <b>9.8</b>    | 4.1               | 1,868 |     |

- 주: 1) 사망관련 준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만을 설문대상으로 하였음  
 2) 각 준비방법에 대해 ‘준비했음’으로 응답한 비율을 나타냄

## 라. 소득흐름

### 1) 실직

소득흐름 위험과 관련해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직에 대한 염려정도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주 경제활동 층인 40대 및 50대에서 실직에 대한 염려정도가 높았으며, 30대 이하 응답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염려정도가 낮았다. 연령 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II-21〉 실직에 대한 염려정도

(단위: %, 명)

| 구분  | 1            | 2    | 3    | 4    | 5    | 6    | 평균<br>점수 | 응답자<br>수    |     |
|-----|--------------|------|------|------|------|------|----------|-------------|-----|
|     | -----> 매우 걱정 |      |      |      |      |      |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16.7 | 20.4 | 19.9 | 25.0 | 13.0 | 5.1      | 3.13        | 216 |
|     | 30대          | 11.6 | 25.4 | 20.5 | 22.1 | 12.5 | 7.9      | 3.22        | 303 |
|     | 40대          | 7.6  | 20.4 | 18.1 | 23.3 | 18.7 | 12.0     | 3.61        | 343 |
|     | 50대          | 7.0  | 18.8 | 16.1 | 25.5 | 21.5 | 11.2     | <b>3.69</b> | 330 |
|     | 60대          | 10.6 | 15.6 | 20.0 | 24.4 | 17.5 | 11.9     | 3.58        | 160 |
| 전체  | 10.1         | 20.6 | 18.6 | 24.0 | 16.9 | 9.8  | 3.46     | 1,352       |     |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실직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걱정되지 않음)에서 6(매우 걱정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실직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8.04\*\*\*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질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를 조사한 결과, 60대, 20대 이하, 50대, 40대, 30대 순으로 평균적인 대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II-22〉 실직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단위: %, 명)

| 구분  | 1             | 2    | 3    | 4    | 5    | 6    | 평균<br>점수 | 응답자<br>수    |     |
|-----|---------------|------|------|------|------|------|----------|-------------|-----|
|     | -----> 충분히 준비 |      |      |      |      |      |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9.3  | 21.3 | 24.5 | 31.5 | 10.6 | 2.8      | 3.21        | 216 |
|     | 30대           | 15.8 | 27.7 | 24.1 | 20.5 | 8.6  | 3.3      | 2.88        | 303 |
|     | 40대           | 12.8 | 26.2 | 27.1 | 22.4 | 8.7  | 2.6      | 2.96        | 343 |
|     | 50대           | 13.9 | 22.1 | 23.0 | 27.6 | 11.2 | 2.1      | 3.06        | 330 |
|     | 60대           | 9.4  | 18.1 | 21.9 | 25.0 | 19.4 | 6.3      | <b>3.46</b> | 160 |
| 전체  | 12.8          | 23.8 | 24.4 | 25.0 | 10.9 | 3.1  | 3.07     | 1,352       |     |

-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실직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준비하지 못함)에서 6(충분히 준비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가 증가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6.43\*\*\*

실직위험에 대한 대비정도에서 중간(6점 척도 중 3점)이상인 자에 한해 어떤 방법으로 실직과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지 설문하였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직업훈련을 통해 실직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축, 부업 마련, 기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훈련을 통한 위험대비정도는 20대 이하가 가장 높았고, 30대가 가장 낮았다.

〈표 III-23〉 실직과 관련된 위험 대비방법(다중 응답)

(단위: %, 명)

| 구분  | 직업훈련        | 저축          | 부업 마련 | 기타   | 응답자 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b>78.4</b> | 37.1  | 49.5 | 7.2   | 97  |
|     | 30대         | <b>70.4</b> | 37.8  | 46.9 | 3.1   | 98  |
|     | 40대         | <b>75.9</b> | 33.6  | 33.6 | 4.3   | 116 |
|     | 50대         | <b>74.8</b> | 31.9  | 17.8 | 5.9   | 135 |
|     | 60대         | <b>74.1</b> | 34.6  | 17.3 | 8.6   | 81  |
| 전체  | <b>74.8</b> | 34.7        | 32.4  | 5.7  | 527   |     |

주: “어떤 방법으로 실직과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 2) 폐업

소득위험에 관한 위험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폐업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는지 설문하였다. 응답자 표본 수가 155명에 불과해 결과를 해석할 때 대표성 및 신뢰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폐업에 대한 염려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24〉 폐업에 대한 염려정도

(단위: %, 명)

| 구분  | 1            | 2    | 3    | 4    | 5    | 6    | 평균 점수 | 응답자 수       |    |
|-----|--------------|------|------|------|------|------|-------|-------------|----|
|     | -----> 매우 걱정 |      |      |      |      |      |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25.0 | 12.5 | 25.0 | 12.5 | 12.5 | 12.5  | 3.13        | 8  |
|     | 30대          | 16.7 | 33.3 | 16.7 | 16.7 | 0.0  | 16.7  | 3.00        | 6  |
|     | 40대          | 0.0  | 21.6 | 13.5 | 37.8 | 16.2 | 10.8  | 3.81        | 37 |
|     | 50대          | 4.8  | 11.3 | 12.9 | 27.4 | 35.5 | 8.1   | 4.02        | 62 |
|     | 60대          | 9.5  | 4.8  | 16.7 | 16.7 | 31.0 | 21.4  | <b>4.19</b> | 42 |
| 전체  | 6.5          | 12.9 | 14.8 | 25.8 | 27.1 | 12.9 | 3.93  | 155         |    |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폐업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걱정되지 않음)에서 6(매우 걱정됨)으로 성향점수가 상승할수록 폐업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1.78

앞서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폐업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40대, 60대, 30대, 20대 이하, 50대 순으로 대비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25〉 폐업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단위: %, 명)

| 구분  | 1             | 2    | 3    | 4    | 5    | 6    | 평균<br>점수 | 응답자<br>수    |    |
|-----|---------------|------|------|------|------|------|----------|-------------|----|
|     | -----> 충분히 준비 |      |      |      |      |      |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25.0 | 12.5 | 0.0  | 50.0 | 12.5 | 0.0      | 3.13        | 8  |
|     | 30대           | 16.7 | 16.7 | 33.3 | 16.7 | 0.0  | 16.7     | 3.17        | 6  |
|     | 40대           | 10.8 | 8.1  | 27.0 | 43.2 | 8.1  | 2.7      | <b>3.38</b> | 37 |
|     | 50대           | 17.7 | 14.5 | 30.6 | 22.6 | 12.9 | 1.6      | 3.03        | 62 |
|     | 60대           | 16.7 | 21.4 | 11.9 | 26.2 | 14.3 | 9.5      | 3.29        | 42 |
| 전체  | 16.1          | 14.8 | 23.2 | 29.7 | 11.6 | 4.5  | 3.19     | 155         |    |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폐업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준비하지 못함)에서 6(충분히 준비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가 증가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0.42

폐업과 관련된 위험 대비방법에 대해서 비상계획 수립, 새로운 사업아이디어 구상, 구직 준비, 저축, 기타를 포함해 설문하였다. 20대 이하의 경우엔 구직 준비와 저축, 30대 이하의 경우에도 구직 준비와 저축 그리고 새로운 사업아이디어 구상, 40~60대의 경우에도 저축이 가장 높게 나타나 새로운 사업아이디어, 비상계획수립, 구직 준비 보다도 저축을 통해서 주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6〉 폐업과 관련된 위험 대비방법(다중 응답)

(단위: %, 명)

| 구분  | 비상계획<br>수립 | 새로운<br>사업아이디어<br>구상 | 구직 준비       | 저축          | 기타          | 응답자 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0.0                 | 0.0         | <b>60.0</b> | <b>60.0</b> | 0.0   | 5  |
|     | 30대        | 0.0                 | <b>50.0</b> | <b>50.0</b> | <b>50.0</b> | 0.0   | 2  |
|     | 40대        | 25.0                | 45.0        | 20.0        | <b>50.0</b> | 5.0   | 20 |
|     | 50대        | 30.4                | 43.5        | 34.8        | <b>47.8</b> | 4.3   | 23 |
|     | 60대        | 38.1                | 23.8        | 14.3        | <b>66.7</b> | 14.3  | 21 |
| 전체  | 28.2       | 35.2                | 26.8        | <b>54.9</b> | 7.0         | 71    |    |

주: "어떤 방법으로 폐업과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 마. 재산손해

### 1) 일상생활 배상책임

재산손해에 관한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 조사로 먼저 일상생활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는지 설문하였다. 6점 척도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3.93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40대, 50대, 30대, 20대 이하 순으로 관련 위험에 대해 염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Ⅲ-27〉 일상생활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정도 (단위: %, 명)

| 구분  | 1            | 2    | 3    | 4    | 5    | 6    | 평균<br>점수 | 응답자<br>수    |     |
|-----|--------------|------|------|------|------|------|----------|-------------|-----|
|     | -----> 매우 걱정 |      |      |      |      |      |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5.6  | 19.7 | 21.4 | 31.3 | 16.1 | 5.9      | 3.50        | 355 |
|     | 30대          | 5.5  | 17.7 | 25.3 | 27.6 | 16.6 | 7.3      | 3.54        | 344 |
|     | 40대          | 2.9  | 17.0 | 21.8 | 35.5 | 17.5 | 5.3      | 3.64        | 417 |
|     | 50대          | 2.9  | 19.5 | 23.2 | 31.6 | 17.7 | 5.1      | 3.57        | 452 |
|     | 60대          | 5.1  | 16.3 | 18.1 | 34.3 | 18.1 | 8.1      | <b>3.68</b> | 332 |
| 전체  | 4.3          | 18.1 | 22.1 | 32.2 | 17.2 | 6.2  | 3.93     | 1,900       |     |

주: 1) “귀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십니까? (예를 들어, 수도관이 터져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거나, 반려견이 타인을 무는 사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남의 차에 흠집을 내는 사고 등)”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걱정되지 않음)에서 6(매우 걱정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일상생활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2.39\*

응답자의 평소 배상책임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40대의 대비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20대 이하의 대비정도가 가장 낮았다. 60대의 경우엔 40대 다음으로 위험에 대해 대비하는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Ⅲ-28〉 일상생활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단위: %, 명)

| 구분  | 1             | 2    | 3    | 4    | 5    | 6    | 평균<br>점수 | 응답자<br>수    |     |
|-----|---------------|------|------|------|------|------|----------|-------------|-----|
|     | -----> 충분히 준비 |      |      |      |      |      |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16.1 | 27.6 | 26.5 | 22.5 | 6.5  | 0.8      | 2.78        | 355 |
|     | 30대           | 17.2 | 23.3 | 21.8 | 25.9 | 8.7  | 3.2      | 2.95        | 344 |
|     | 40대           | 9.6  | 23.5 | 21.8 | 28.8 | 12.2 | 4.1      | <b>3.23</b> | 417 |
|     | 50대           | 14.6 | 21.2 | 21.2 | 25.7 | 15.3 | 2.0      | 3.12        | 452 |
|     | 60대           | 14.8 | 20.5 | 21.7 | 22.0 | 17.2 | 3.9      | 3.18        | 332 |
| 전체  | 14.3          | 23.2 | 22.5 | 25.2 | 12.1 | 2.8  | 3.06     | 1,900       |     |

- 주: 1) “귀하께서는 평소 배상책임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준비하지 못함)에서 6(충분히 준비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가 증가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6.97\*\*\*

다음으로 배상책임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도 조사했는데, 응답자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책임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49.6%), 저축 등을 통한 비상기금 마련(48.0%),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42.4%) 순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경우 저축 등을 통한 비상기금 마련을 통해 주로 대비하고 있으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았다. 30대 이상부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배상책임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조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졌으며, 40대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표 Ⅲ-29〉 일상생활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다중 응답)

(단위: %, 명)

| 구분  | 배상책임 발생<br>가능성을 줄이기<br>위해 노력 | 일상생활배상책<br>임보험 가입 | 저축 등을 통한<br>비상기금 마련 | 기타          | 응답자<br>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59.1              | 20.8                | <b>64.4</b> | 1.3      | 298 |
|     | 30대                          | 44.9              | 41.1                | <b>51.2</b> | 0.4      | 285 |
|     | 40대                          | 47.2              | <b>54.6</b>         | 41.1        | 0.8      | 377 |
|     | 50대                          | 45.6              | <b>48.4</b>         | 40.7        | 2.6      | 386 |
|     | 60대                          | <b>53.0</b>       | 41.7                | 46.6        | 1.1      | 283 |
| 전체  | <b>49.6</b>                  | 42.4              | 48.0                | 1.3         | 1,629    |     |

주: “어떤 방법으로 배상책임과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 2) 재산 손해(화재, 도난 등)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해 자연재해, 화재, 도난 등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는지 조사하였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염려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20대 이하 응답자의 염려정도가 가장 낮았다. 다만, 이러한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30〉 재산상의 손해(자연재해, 화재, 도난 등)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염려정도

(단위: %, 명)

| 구분  | 1            | 2    | 3    | 4    | 5    | 6    | 평균<br>점수 | 응답자<br>수    |     |
|-----|--------------|------|------|------|------|------|----------|-------------|-----|
|     | -----> 매우 걱정 |      |      |      |      |      |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9.0  | 24.8 | 21.4 | 30.4 | 11.8 | 2.5      | 3.19        | 355 |
|     | 30대          | 5.5  | 25.3 | 21.8 | 29.9 | 11.6 | 5.8      | 3.34        | 344 |
|     | 40대          | 4.8  | 21.8 | 24.9 | 31.9 | 11.3 | 5.3      | <b>3.39</b> | 417 |
|     | 50대          | 3.1  | 27.7 | 22.6 | 29.9 | 13.5 | 3.3      | 3.33        | 452 |
|     | 60대          | 4.5  | 28.9 | 20.8 | 25.0 | 14.8 | 6.0      | 3.35        | 332 |
| 전체  | 5.3          | 25.6 | 22.4 | 29.6 | 12.6 | 4.5  | 3.32     | 1,900       |     |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재산상의 손해(자연재해, 화재, 도난 등)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걱정되지 않음)에서 6(매우 걱정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자연재해, 화재, 도난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1.36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의 평균 점수는 2.90이며, 중간점수인 3.00보다 낮아 평균적으로 대비정도의 중간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앞서 염려정도와 유사하게 40대가 대비정도가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의 대비정도가 가장 낮았다. 연령대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II-31〉 재산상의 손해(자연재해, 화재, 도난 등)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단위: %, 명)

| 구분  |        | 1             | 2    | 3    | 4    | 5    | 6   | 평균<br>점수    | 응답자<br>수 |
|-----|--------|---------------|------|------|------|------|-----|-------------|----------|
|     |        | -----> 충분히 준비 |      |      |      |      |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16.9          | 23.1 | 29.3 | 22.5 | 6.5  | 1.7 | 2.84        | 355      |
|     | 30대    | 17.4          | 29.4 | 23.3 | 22.7 | 5.5  | 1.7 | 2.75        | 344      |
|     | 40대    | 10.8          | 25.9 | 27.1 | 27.3 | 7.0  | 1.9 | <b>3.00</b> | 417      |
|     | 50대    | 14.8          | 25.9 | 22.8 | 26.5 | 9.1  | 0.9 | 2.92        | 452      |
|     | 60대    | 15.1          | 25.6 | 21.1 | 25.6 | 10.2 | 2.4 | 2.98        | 332      |
| 전체  |        | 14.8          | 25.9 | 24.7 | 25.1 | 7.7  | 1.7 | 2.90        | 1,900    |

-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준비하지 못함)에서 6(충분히 준비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가 증가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2.47\*\*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설문하였는데, 전체적인 분포를 기준으로 도난방지장치, 화재방지 등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보험가입을 통한 위험 대비는 35.4%에 불과했다. 20대 이하 및 30대 응답자의 경우 저축 등을 통한 비상기금 마련을 통한 위험대비가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나 보험가입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I-32〉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다중 응답)

(단위: %, 명)

| 구분  |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br>위해 노력 | 보험가입        | 저축 등을 통한<br>비상기금 마련 | 기타          | 응답자<br>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b>59.0</b> | 23.1                | 63.7        | 0.7      | 295   |
|     | 30대                  | 54.2        | 33.8                | <b>61.6</b> | 0.4      | 284   |
|     | 40대                  | <b>61.6</b> | 41.1                | 47.3        | 1.1      | 372   |
|     | 50대                  | <b>54.3</b> | 39.7                | 51.2        | 0.8      | 385   |
|     | 60대                  | <b>62.4</b> | 36.2                | 49.6        | 1.8      | 282   |
| 전체  |                      | <b>58.2</b> | 35.4                | 54.1        | 0.9      | 1,618 |

- 주: 1) "어떤 방법으로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는 도난방지장치, 화재방지 등이 포함됨  
 3) 보험가입에는 집(종합)보험, 주택화재보험 등 재산보험이나 풍수해보험 가입이 포함됨

### 3) 사이버 사고

재산상의 손해 관련 위험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유출,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 사이버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염려정도를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염려정도의 평균 점수는 3.69였으며, 연령별로는 60대, 50대, 40대 및 20대 이하, 30대 순으로 염려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염려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II-33〉 사이버사고(개인정보유출,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염려정도  
(단위: %, 명)

| 구분  | 1            | 2    | 3    | 4    | 5    | 6    | 평균<br>점수 | 응답자<br>수    |     |
|-----|--------------|------|------|------|------|------|----------|-------------|-----|
|     | -----> 매우 걱정 |      |      |      |      |      |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7.9  | 14.1 | 20.3 | 29.3 | 22.0 | 6.5      | 3.63        | 355 |
|     | 30대          | 7.8  | 18.9 | 20.3 | 27.0 | 18.9 | 7.0      | 3.51        | 344 |
|     | 40대          | 4.1  | 19.7 | 20.1 | 28.3 | 20.6 | 7.2      | 3.63        | 417 |
|     | 50대          | 2.4  | 19.0 | 17.3 | 29.6 | 21.2 | 10.4     | 3.79        | 452 |
|     | 60대          | 4.5  | 12.7 | 16.3 | 30.1 | 29.2 | 7.2      | <b>3.89</b> | 332 |
| 전체  | 5.2          | 17.1 | 18.8 | 28.9 | 22.2 | 7.8  | 3.69     | 1,900       |     |

-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사이버사고(개인정보유출,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걱정되지 않음)에서 6(매우 걱정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사이버사고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4.43\*\*

다음으로 사이버사고와 관련된 위험에 대비정도는 20대 이하, 60대, 40대, 30대, 50대 순으로 대비정도가 높게 나타나서 가장 젊은 연령대인 20대 이하의 대비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II-34〉 사이버사고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단위: %, 명)

| 구분  |        | 1             | 2    | 3    | 4    | 5    | 6   | 평균<br>점수    | 응답자<br>수 |
|-----|--------|---------------|------|------|------|------|-----|-------------|----------|
|     |        | -----> 충분히 준비 |      |      |      |      |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13.0          | 21.1 | 26.8 | 23.7 | 10.7 | 4.8 | <b>3.12</b> | 355      |
|     | 30대    | 20.3          | 25.6 | 25.6 | 18.0 | 7.6  | 2.9 | 2.76        | 344      |
|     | 40대    | 13.4          | 29.3 | 26.4 | 22.3 | 7.0  | 1.7 | 2.85        | 417      |
|     | 50대    | 15.9          | 30.1 | 27.9 | 19.7 | 5.8  | 0.7 | 2.71        | 452      |
|     | 60대    | 20.2          | 24.7 | 24.4 | 19.9 | 9.9  | 0.9 | 2.77        | 332      |
| 전체  |        | 16.4          | 26.5 | 26.3 | 20.7 | 8.0  | 2.1 | 2.84        | 1,900    |

- 주: 1) "귀하께서는 평소 사이버사고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준비하지 못함)에서 6(충분히 준비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가 증가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6.26\*\*\*

사이버사고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으로 사이버보험 가입,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사용, 비밀번호 관리, 디지털계정 로그인에 다중 승인 사용, 기타 사유를 포함해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비밀번호 관리,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사용, 디지털계정 로그인에 다중 승인 사용, 사이버보험 가입, 기타 순으로 사이버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사이버보험 가입을 통한 위험에 대한 대비는 2.7%에 불과해 매우 미미했다. 연령별로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6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나 세대보다 비밀번호 관리를 통한 위험 대비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20대 이하의 경우 다른 응답자보다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사용을 통한 위험대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35〉 사이버사고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다중 응답)

(단위: %, 명)

| 구분  | 사이버보험<br>가입 | 사이버보안<br>소프트웨어<br>사용 | 비밀번호<br>관리 | 디지털계정<br>로그인에 다중<br>승인 사용 | 기타   | 응답자<br>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3.9                  | 66.0       | <b>66.3</b>               | 40.5 | 1.0      | 309   |
|     | 30대         | 2.2                  | 58.4       | <b>61.7</b>               | 43.1 | 1.5      | 274   |
|     | 40대         | 3.3                  | 62.9       | <b>67.6</b>               | 35.2 | 2.2      | 361   |
|     | 50대         | 1.8                  | 58.4       | <b>70.3</b>               | 26.3 | 2.6      | 380   |
|     | 60대         | 2.3                  | 62.3       | <b>77.4</b>               | 24.9 | 1.9      | 265   |
| 전체  |             | 2.7                  | 61.5       | <b>68.6</b>               | 33.7 | 1.9      | 1,589 |

- 주: 1) "어떤 방법으로 사이버 사고와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사용에 백신프로그램이 포함됨  
 3) 비밀번호 관리에는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애플리케이션 사용 등이 포함됨

## 바. 종합

종합하면, 건강 및 간병 위험영역에서는 신체건강 위협의 경우 40대의 염려 수준이 가장 높았으나, 대비수준은 30대가 가장 높았다. 20대의 경우 신체건강 위협에 대한 염려 수준과 대비수준이 모두 낮았다. 정신건강 위협의 경우 30대의 염려 수준이 가장 높으나, 60대의 대비수준이 가장 높았다. 또한, 60대의 정신건강 위협에 대한 염려 수준이 가장 낮았고, 대비수준은 40대가 가장 낮았다. 본인간병 위협의 경우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50대의 염려 수준이 가장 높았고, 대비수준은 60대가 가장 높았다. 반면, 연령대가 가장 낮은 20대는 본인간병 위협에 대한 염려 수준과 대비수준이 모두 낮았다. 자신의 간병이 아닌 가족을 위한 간병위험의 경우 50대의 염려 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20대의 대비수준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또한, 20대는 가족을 위한 간병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이 가장 낮았으나, 대비수준이 가장 낮다고 응답한 연령대는 30대였다.

〈표 III-36〉 염려정도 및 대비정도: 건강 및 간병위험

| 구분    |     | 신체건강 |    | 정신건강 |    | 본인간병 |    | 가족간병 |    |
|-------|-----|------|----|------|----|------|----|------|----|
|       |     | 염려   | 대비 | 염려   | 대비 | 염려   | 대비 | 염려   | 대비 |
| 가장 높음 | 연령대 | 40   | 30 | 30   | 60 | 50   | 60 | 50   | 20 |
| 가장 낮음 | 연령대 | 20   | 20 | 60   | 40 | 20   | 20 | 20   | 30 |

주: '20'은 20대 이하, '30'은 30대, '40'은 40대, '50'은 50대, '60'은 60대를 각각 의미함

은퇴 및 사망 위험영역의 연령대별 염려 및 대비정도를 정리하면, 은퇴준비 위험에 있어서 40대의 염려정도가 높은 반면, 대비정도는 60대가 가장 높았다. 20대의 경우 은퇴준비 위험에 있어 염려정도와 대비정도 모두 가장 낮았다. 사망위험의 경우 연령대가 가장 높은 60대의 대비정도가 가장 높은 반면, 연령대가 가장 낮은 20대의 대비정도가 가장 낮았다.

〈표 III-37〉 염려정도 및 대비정도: 은퇴준비 및 사망위험

| 구분    |     | 은퇴준비 |    | 사망 |    |
|-------|-----|------|----|----|----|
|       |     | 염려   | 대비 | 염려 | 대비 |
| 가장 높음 | 연령대 | 40   | 60 | -  | 60 |
| 가장 낮음 | 연령대 | 20   | 20 | -  | 20 |

주: '20'은 20대 이하, '30'은 30대, '40'은 40대, '50'은 50대, '60'은 60대를 각각 의미함

소득흐름 및 재산손해 위험영역을 정리하면, 실직위험의 경우 50대의 염려 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60대의 대비수준이 가장 높았다. 실직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20대였고, 관련 대비수준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대였다. 폐업위험의 경우 60대의 염려 수준이 가장 높았으나, 이에 대한 대비는 40대가 가장 높았다. 30대는 폐업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이 가장 낮았고, 대비수준은 50대가 가장 낮았다. 배상책임 위험의 경우 60대의 염려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대비수준은 40대가 가장 높았다. 20대는 배상책임 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이 가장 낮았고, 대비수준은 30대가 가장 낮았다. 재산손해위험의 경우 40대가 염려 수준 및 대비수준이 가장 높은 연령대였으며, 관련 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20대, 대비수준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대였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사고 위험의 경우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50대의 염려 수준이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가장 낮은 20대의 대비수준이 가장 높았다. 30대는 사이버사고 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이 가장 낮은 연령대였으며, 대비수준은 50대가 가장 낮았다.

〈표 Ⅲ-38〉 염려정도 및 대비정도: 소득흐름 및 재산손해위험

| 구분    |     | 실직 |    | 폐업 |    | 배상책임 |    | 재산손해 |    | 사이버사고 |    |
|-------|-----|----|----|----|----|------|----|------|----|-------|----|
|       |     | 염려 | 대비 | 염려 | 대비 | 염려   | 대비 | 염려   | 대비 | 염려    | 대비 |
| 가장 높음 | 연령대 | 50 | 60 | 60 | 40 | 60   | 40 | 40   | 40 | 50    | 20 |
| 가장 낮음 | 연령대 | 20 | 30 | 30 | 50 | 20   | 30 | 20   | 30 | 30    | 50 |

주: '20'은 20대 이하, '30'은 30대, '40'은 40대, '50'은 50대, '60'은 60대를 각각 의미함

이상을 정리하면, 해당 위험에 대해 염려정도가 가장 높은 연령집단이 반드시 가장 높게 위험에 대해 대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위험영역 중 가장 높은 염려정도를 가진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의 대비를 하고 있는 영역은 오직 재산손해 위험뿐이며, 나머지 영역은 가장 높은 염려정도를 가진 집단과 가장 높은 수준의 대비를 하고 있는 집단이 불일치했다. 신체건강, 본인간병, 은퇴준비 위험영역에서는 염려정도가 가장 낮은 20대 이하가 관련 위험에 대한 대비수준에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의 특징상 상대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은퇴시기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20대 이하의 경우 신체건강, 본인간병, 은퇴준비 위험에 대한 염려 및 대비수준이 가장 낮을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준 조사 결과이다. 또한, 사이버사고 위험 관련해서는 50대가 염려 수준이 가장 높았지만, 대비수준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금까지 개별 위험에 대한 염려정도 및 대비수준이 가장 높거나 낮은 연령대를 파악해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의 절대적인 분포를 파악하고 연령대별 비교작업을 수행했다. 다음으로는 응답자의 개별 위험에 대한 염려정도 대비 대비정도 비율을 산출하여 염려 수준에 비해 대비수준이 상대적으로 어떠한지를 직접적으로 파악해본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우선 신체건강 위험의 경우 20대 이하가 염려정도 대비 대비정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40대가 가장 낮았다. 즉, 신체건강에 대한 염려 수준과 대비수준 간의 상대적 격차는 20대가 가장 높고 4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 경우 동 비율이 60대가 가장 높고 40대가 가장 낮아서 신체건강 위험과 마찬가지로 4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간병 위험의 경우 60대가 가장 높고 20대가 가장 낮았으며, 가족간병위험의 경우 20대가 가장 높고 30대가 가장 낮았다. 은퇴준비 위험의 경우 60대의 염려 수준 대비 상대적으로 대비수준이 가장 높았고, 40대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 실직위험의 경우 60대가 가장 높았고, 40대가 가장 낮았으며, 폐업위험의 경우 30대가 가장 높았고, 50대가 가장 낮았다. 배상책임 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 대비 대비수준은 60대가 가장 높았고, 20대가 가장 낮았으며, 재산손해위험의 경우 60대가 가장 높고, 30대가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사고 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 대비 대비수준은 20대가 가장 높았고, 5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절대적인 분포를 통한 비교 결과와 더불어 위험에 대한 인식수준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체건강 위험의 경우 염려 수준과 대비수준이 가장 낮은 연령대가 20대 이하였는데, 염려 수준 대비 대비수준은 가장 높았다. 또한, 40대는 신체적 건강에 대한 염려 수준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데 염려 수준 대비 대비수준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손해위험의 경우 30대의 대비수준이 가장 낮은데, 염려 수준 대비 대비수준의 비율도 가장 낮았다. 이처럼 염려 수준이 가장 높거나, 대비수준이 가장 낮으면서 염려 수준 대비 대비수준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해당 위험에 대한 관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각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Ⅲ-39〉 염려정도 대비 대비정도 비율: 전체 위험

| 구분 | 신체 건강       | 정신 건강       | 본인 간병       | 가족 간병       | 은퇴 준비       | 실직          | 폐업          | 배상 책임       | 재산 손해       | 사이버 사고      |
|----|-------------|-------------|-------------|-------------|-------------|-------------|-------------|-------------|-------------|-------------|
| 20 | <b>1.02</b> | 1.21        | <b>0.70</b> | <b>1.19</b> | 0.79        | 1.35        | 1.33        | <b>0.91</b> | 1.03        | <b>1.03</b> |
| 30 | 0.98        | 1.21        | 0.74        | <b>0.58</b> | 0.83        | 1.16        | <b>1.82</b> | 0.97        | <b>0.92</b> | 0.94        |
| 40 | <b>0.94</b> | <b>1.20</b> | 0.74        | 0.82        | <b>0.74</b> | <b>1.09</b> | 1.08        | 1.04        | 1.04        | 0.94        |
| 50 | 0.97        | 1.41        | 0.74        | 0.63        | 0.79        | 1.10        | <b>0.99</b> | 1.01        | 1.00        | <b>0.81</b> |
| 60 | 0.98        | <b>1.66</b> | <b>0.78</b> | 0.68        | <b>1.11</b> | <b>1.40</b> | 1.12        | <b>1.09</b> | <b>1.05</b> | 0.85        |

주: 1) '20'은 20대 이하, '30'은 30대, '40'은 40대, '50'은 50대, '60'은 60대를 각각 의미함

2) 각각의 수치는 응답자의 개별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점수(6점 만점)를 염려정도 점수(6점 만점)로 나눈 값의 연령대별 평균임

한편, 건강 및 간병위험에 대해 1순위로 응답된 대비방법을 살펴보면, 신체건강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의 경우 6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보험가입이 가장 선호되었다. 60대는 정기건강검진이 가장 높게 응답된 신체건강위험에 대한 대비방법이었다. 정신건강위험에 대한 대비방법에서도 6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명상이 높게 선호된 위험대비 방법이었으며, 60대는 사회활동이 가장 높게 선호된 위험대비 방법이었다. 본인간병 및 가족간병 위험의 경우 대부분 연령대에서 공보험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위험을 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 1순위 대비방법이었으나, 20대 이하의 경우 본인간병위험 및 가족간병 위험에 대한 1순위 대비방법이 저축이었다. 40대의 경우도 가족간병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으로 저축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Ⅲ-40〉 연령대별 위험 대비방법: 건강 및 간병위험(1순위)

| 구분     | 신체건강   | 정신건강 | 본인간병   | 가족간병   |
|--------|--------|------|--------|--------|
| 20대 이하 | 보험가입   | 명상   | 저축     | 저축     |
| 30대    | 보험가입   | 명상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보험 |
| 40대    | 보험가입   | 명상   | 장기요양보험 | 저축     |
| 50대    | 보험가입   | 명상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보험 |
| 60대    | 정기건강검진 | 사회활동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보험 |

은퇴 및 소득흐름 위험에 대해 1순위로 응답된 방법은 은퇴 준비위험의 경우 모든 연령대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통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었다. 또한, 부채상환 위험의 경우도 모든 연령대가 개인저축을 통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III-41〉 연령대별 위험 대비방법: 은퇴준비 및 소득흐름 위험(1순위)

| 구분     | 은퇴준비 | 부채상환 |
|--------|------|------|
| 20대 이하 | 국민연금 | 저축   |
| 30대    | 국민연금 | 저축   |
| 40대    | 국민연금 | 저축   |
| 50대    | 국민연금 | 저축   |
| 60대    | 국민연금 | 저축   |

실직위험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직업훈련이 가장 높게 응답된 대비방법이었다. 폐업 위험의 경우에도 실직위험과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대에서 저축이 가장 높게 응답된 대비방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상책임 위험의 경우 40대, 50대에서 보험가입을 통한 위험 대비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20대 이하 및 30대는 저축, 60대는 예방을 위한 자조적인 노력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재산상 손해 위험의 경우 20대 이하 및 30대는 저축, 40대 이상 연령대는 모두 예방을 위한 자조적인 노력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사고 위험의 경우 모든 연령집단에서 비밀번호관리가 가장 높게 응답된 대비방법이었다.

〈표 III-42〉 연령대별 위험 대비방법: 소득흐름 및 재산손해위험(1순위)

| 구분     | 실직   | 폐업 | 배상책임 | 재산상 손해 | 사이버사고  |
|--------|------|----|------|--------|--------|
| 20대 이하 | 직업훈련 | 저축 | 저축   | 저축     | 비밀번호관리 |
| 30대    | 직업훈련 | 저축 | 저축   | 저축     | 비밀번호관리 |
| 40대    | 직업훈련 | 저축 | 보험가입 | 예방노력   | 비밀번호관리 |
| 50대    | 직업훈련 | 저축 | 보험가입 | 예방노력   | 비밀번호관리 |
| 60대    | 직업훈련 | 저축 | 예방노력 | 예방노력   | 비밀번호관리 |

이상을 정리하면, 각각의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은 다양했으나, 공적보험(연금)으로 관련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간병위험, 은퇴준비위험에서는 장기요양보험과 국민연금이 가장 높게 응답된 대비방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영보험 가입이 위험 대비방법으로 가장 높게 응답된 영역은 신체건강과 배상책임으로만 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보험가입 여부 및 미가입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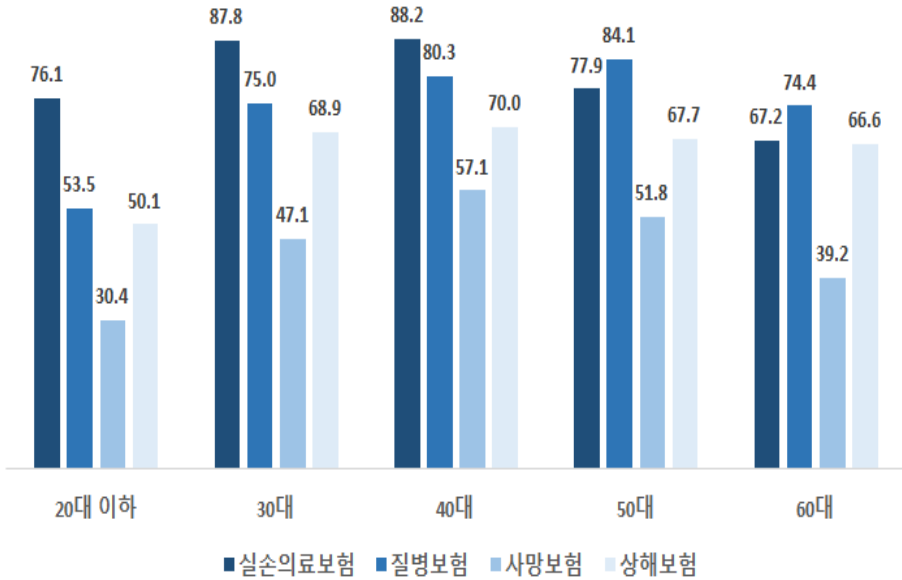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해당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보유 및 가입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보험상품의 보유 여부와 해당 보험상품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중심으로 연령대별 보험가입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 가. 건강위험

개인의 건강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사망보험, 상해보험을 포함해 보험 보유 및 가입경험을 조사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40대(88.2%)의 가입률이 가장 높았으며, 30대, 50대, 20대 이하, 60대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실손의료보험의 최대 가입연령이 75세까지이고 유병력자에 대한 가입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60대(67.2%)의 가입률이 가장 낮은 것은 보험상품 가입조건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질병보험은 암보험, 심혈관질환보험, 치아보험 등을 포함하여 설문하였으며, 50대(84.1%)의 가입률이 가장 높았으며, 40대의 가입률도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질병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이하의 가입률은 5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개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보장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대부분 연령대에서 가입률이 60% 미만으로 나타나서 다른 건강 관련 보험상품보다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40대 및 50대의 가입률이 50%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는 높았다. 상해보험은 재해보험, 운전자보험, 장해보험 등을 포함해 조사했으며, 40대, 30대, 50대, 60대, 20대 이하 순으로 높았으며, 특히 20대 이하의 가입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낮았다. 연령대별 보험가입률의 차이는 모든 보험 종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림 III-1〉 연령대별 건강 관련 보험상품 보유 여부

(단위: %, 명)



- 주: 1) 질병보험에는 암보험, 심혈관질환보험, 치아보험 등이 포함됨
- 2) 사망보험에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이 포함됨
- 3) 상해보험에는 재해보험, 운전자보험, 장해보험 등이 포함됨
- 4) 실손의료보험 가입 관련 평균차이 검정 F-값: 17.83\*\*\*
- 5) 질병보험 가입 관련 평균차이 검정 F-값: 29.30\*\*\*
- 6) 사망보험 가입 관련 평균차이 검정 F-값: 17.52\*\*\*
- 7) 상해보험 가입 관련 평균차이 검정 F-값: 11.01\*\*\*
- 8) 응답자 수: 20대 이하(355), 30대(344), 40대(417), 50대(452), 60대(332)

다음으로 각 건강보험상품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였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미가입 사유로는 전체 응답자의 22.1%가 “실손의료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사유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21.6%가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로 실손의료보험에 미가입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인 경우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40대는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보상 제외 항목 때문에”, 30대는 “소득부족으로 가입 여력이 없어서”, 20대 이하는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로 응답하여 연령대별로 미가입 사유에 편차가 있음을 보였다.

〈표 Ⅲ-43〉 실손의료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단위: %, 명)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응답자 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12.9        | 18.8        | 3.5  | 5.9  | <b>37.6</b> | 3.5  | 12.9        | 4.7   | 85  |
|     | 30대    | 7.1         | 19.0        | 14.3 | 14.3 | 16.7        | 0.0  | <b>23.8</b> | 4.8   | 42  |
|     | 40대    | 22.4        | <b>32.7</b> | 14.3 | 18.4 | 4.1         | 0.0  | 6.1         | 2.0   | 49  |
|     | 50대    | <b>29.0</b> | 24.0        | 4.0  | 4.0  | 11.0        | 6.0  | 14.0        | 8.0   | 100 |
|     | 60대    | <b>26.6</b> | 19.3        | 8.3  | 12.8 | 5.5         | 4.6  | 17.4        | 5.5   | 109 |
| 전체  | 21.6   | <b>22.1</b> | 7.5         | 9.9  | 15.1 | 3.6         | 14.8 | 5.5         | 385   |     |

- 주: ①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② 실손의료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  
 ③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할 수 있어서  
 ④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보상 제외 항목 때문에  
 ⑤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  
 ⑥ 보험금청구 상황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같지 않아서  
 ⑦ 소득부족으로 가입 여력이 없어서  
 ⑧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과 묶여 있는 상품만 있어서

질병보험의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경우 “질병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 및 60대는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30대 및 40대는 “질병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 20대 이하는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인 사유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표 Ⅲ-44〉 질병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단위: %, 명)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응답자 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11.5        | 32.1        | 3.6  | 11.5 | <b>26.1</b> | 2.4  | 15.8 | 3.6   | 165 |
|     | 30대    | 18.6        | <b>23.3</b> | 10.5 | 18.6 | 15.1        | 2.3  | 16.3 | 2.3   | 86  |
|     | 40대    | 25.6        | <b>29.3</b> | 4.9  | 25.6 | 7.3         | 0.0  | 13.4 | 8.5   | 82  |
|     | 50대    | <b>29.2</b> | 20.8        | 8.3  | 29.2 | 2.8         | 5.6  | 23.6 | 5.6   | 72  |
|     | 60대    | <b>27.1</b> | 23.5        | 2.4  | 27.1 | 5.9         | 4.7  | 22.4 | 5.9   | 85  |
| 전체  | 20.4   | <b>26.9</b> | 5.5         | 20.4 | 14.1 | 2.9         | 17.8 | 4.9  | 490   |     |

- 주: ①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② 질병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  
 ③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할 수 있어서  
 ④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보상 제외 항목 때문에  
 ⑤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  
 ⑥ 보험금청구 상황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같지 않아서  
 ⑦ 소득부족으로 가입 여력이 없어서  
 ⑧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과 묶여 있는 상품만 있어서

사망보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 대상으로는 부양할 가족이 없어 필요를 느끼지 못해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20대 이하 및 30대 응답자에 의해 이러한 응답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0대 이상은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란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45〉 사망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단위: %, 명)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응답자 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11.3        | <b>37.7</b> | 6.9  | 4.0  | 22.7 | 2.0  | 13.0 | 2.4   | 247 |
|     | 30대    | 22.0        | <b>39.0</b> | 3.8  | 5.5  | 11.5 | 1.1  | 13.7 | 3.3   | 182 |
|     | 40대    | <b>30.7</b> | 27.4        | 10.6 | 7.3  | 4.5  | 1.1  | 12.3 | 6.1   | 179 |
|     | 50대    | <b>28.0</b> | 25.2        | 8.7  | 8.7  | 4.6  | 2.8  | 18.3 | 3.7   | 218 |
|     | 60대    | <b>24.8</b> | <b>24.8</b> | 8.9  | 5.0  | 5.4  | 2.5  | 22.8 | 5.9   | 202 |
| 전체  | 22.8   | <b>30.9</b> | 7.8         | 6.0  | 10.3 | 1.9  | 16.1 | 4.2  | 1,028 |     |

- 주: ①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②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부양할 가족이 없음)  
 ③ 사망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부양가족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으므로  
 ④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보상 제외 항목 때문에  
 ⑤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  
 ⑥ 보험금청구 상황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같지 않아서  
 ⑦ 소득부족으로 가입 여력이 없어서  
 ⑧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과 묶여 있는 상품만 있어서

상해보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37.8%가 “상해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로 응답해 관련 보험상품 가입이 필요하지 않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소득부족으로 가입 여력이 없어서”인 사유가 17.9%로 응답해 그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연령별 분포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 연령 구분없이 “상해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가 가장 높은 사유로 조사되었다.

〈표 Ⅲ-46〉 상해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단위: %, 명)

| 구분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응답자 수 |
|-----|--------|------|-------------|-----|-----|------|-----|------|-----|-------|
| 연령대 | 20대 이하 | 5.1  | <b>39.5</b> | 4.0 | 2.3 | 24.3 | 4.0 | 16.9 | 4.0 | 177   |
|     | 30대    | 14.0 | <b>33.6</b> | 5.6 | 8.4 | 15.9 | 2.8 | 17.8 | 1.9 | 107   |
|     | 40대    | 16.0 | <b>40.8</b> | 6.4 | 8.0 | 7.2  | 1.6 | 10.4 | 9.6 | 125   |
|     | 50대    | 13.7 | <b>39.7</b> | 6.8 | 4.1 | 4.1  | 2.7 | 21.9 | 6.8 | 146   |
|     | 60대    | 18.9 | <b>33.3</b> | 1.8 | 8.1 | 3.6  | 3.6 | 22.5 | 8.1 | 111   |
| 전체  |        | 12.8 | <b>37.8</b> | 5.0 | 5.7 | 11.9 | 3.0 | 17.9 | 6.0 | 66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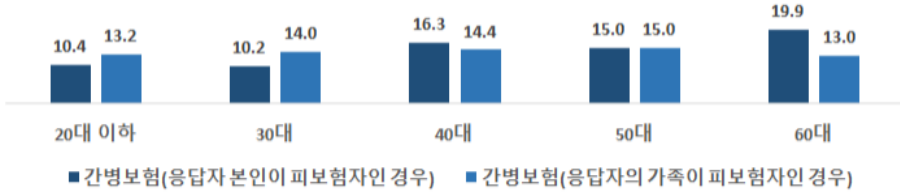
- 주: ①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② 상해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  
 ③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의료비용 관련 비용을 해결할 수 있어서  
 ④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보상 제외 항목 때문에  
 ⑤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  
 ⑥ 보험금청구 상황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같지 않아서  
 ⑦ 소득부족으로 가입 여력이 없어서  
 ⑧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과 묶여 있는 상품만 있어서

## 나. 간병위험

건강과 관련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응답자가 피보험자인 간병보험 상품 가입 여부를 조사하였다. 연령과 관계없이 대부분 가입률이 20% 미만으로 낮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노화로 인해 본인의 간병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60대가 19.9%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가장 낮은 20대 이하의 가입률이 10.4%로 가장 낮았다. 또한, 응답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피보험자인 경우 50대(15.0%), 40대(14.4%), 30대(14.0%), 20대 이하(13.2%), 60대(13.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간에 보험가입률의 차이는 자신을 위한 간병보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의 경우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2〉 연령대별 간병보험 보유 여부

(단위: %, 명)



- 주: 1) 간병보험을 응답자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와 응답자의 가족이 피보험자인 경우로 나누어 설문함  
 2) 자신을 위한 간병보험 가입 관련 평균차이 검정 F-값: 4.78\*\*\*  
 3)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 가입 관련 평균차이 검정 F-값: 0.23  
 4) 응답자 수: 20대 이하(355), 30대(344), 40대(417), 50대(452), 60대(332)

본인을 위한 간병보험 미가입 사유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서”가 높게 나타났다. 40대를 기점으로 가장 높은 미가입 사유가 나뉘지는데 40대 이상은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서”가 가장 높았으며, 30대 이하의 응답자는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가 가장 높은 미가입 사유로 조사되었다.

〈표 III-47〉 본인을 위한 간병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단위: %, 명)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응답자 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6.3         | 24.5 | 4.1 | 2.8 | 8.8 | 1.6  | 11.9        | <b>39.0</b> | 0.9   | 318 |
|     | 30대    | 17.2        | 21.4 | 5.8 | 7.1 | 6.1 | 0.3  | 16.5        | <b>24.9</b> | 0.6   | 309 |
|     | 40대    | <b>21.5</b> | 16.0 | 7.4 | 8.6 | 6.0 | 1.7  | 17.8        | 20.1        | 0.9   | 349 |
|     | 50대    | <b>27.3</b> | 12.8 | 7.3 | 7.6 | 9.4 | 1.6  | 18.0        | 14.6        | 1.6   | 384 |
|     | 60대    | <b>26.3</b> | 17.7 | 8.6 | 9.0 | 3.0 | 3.0  | 20.3        | 9.4         | 2.6   | 266 |
| 전체  | 19.9   | 18.2        | 6.6  | 7.0 | 6.9 | 1.6 | 16.9 | <b>21.6</b> | 1.3         | 1,626 |     |

- 주: ①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② 간병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  
 ③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나의 간병 비용을 해결할 수 있어서  
 ④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보상 제외 항목 때문에  
 ⑤ 보상범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⑥ 보험금청구 상황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같지 않아서  
 ⑦ 소득부족으로 보험가입 여력이 없어서  
 ⑧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  
 ⑨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과 묶여 있는 상품만 있어서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 미가입 사유도 본인을 위한 간병보험 미가입 사유와 유사한 분포가 나타났다. 50대 및 60대의 경우에는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40대 이하의 경우엔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III-48〉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단위: %, 명)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응답자 수 |     |
|-----|--------|------|------|------|-----|-----|------|------|------|-----|-------|-----|
| 연령별 | 20대 이하 | 7.8  | 16.6 | 5.2  | 3.2 | 5.5 | 1.9  | 12.7 | 44.2 | 1.9 | 1.0   | 308 |
|     | 30대    | 17.6 | 12.5 | 9.5  | 6.4 | 4.1 | 2.7  | 17.6 | 28.7 | 0.7 | 0.3   | 296 |
|     | 40대    | 21.6 | 12.9 | 7.3  | 8.7 | 4.5 | 3.6  | 16.2 | 23.0 | 1.4 | 0.8   | 357 |
|     | 50대    | 28.1 | 9.4  | 7.8  | 7.8 | 6.3 | 1.8  | 18.5 | 15.9 | 1.3 | 3.1   | 384 |
|     | 60대    | 26.3 | 13.5 | 11.4 | 8.0 | 4.2 | 2.1  | 19.0 | 9.0  | 1.4 | 5.2   | 289 |
| 전체  | 20.6   | 12.8 | 8.1  | 6.9  | 5.0 | 2.4 | 16.8 | 23.9 | 1.3  | 2.1 | 1,634 |     |

- 주: ①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② 가족(부모님 등) 간병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아서  
 ③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가족의 간병 비용을 해결할 수 있어서  
 ④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보상 제외 항목 때문에  
 ⑤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  
 ⑥ 보험금청구 상황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같지 않아서  
 ⑦ 소득부족으로 가입 여력이 없어서  
 ⑧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  
 ⑨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과 묶여 있는 상품만 있어서  
 ⑩ 간병할 가족이 생존해 계시지 않아서

#### 다. 은퇴 위험

은퇴 위험과 관련해서는 먼저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sup>10)</sup>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한 뜻은 모른다’로 응답한 자가 전체 응답자의 42.2%를 차지해 응답자의 상당수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들어본 적도 없고, 무슨 뜻인지 모른다’라고 응답한 자도 38.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은퇴했거나, 국민연금을 수급 중일 가능성이 높은 세대인 60대에서 50대, 40대, 30대, 20대 이하로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알고 있다’로 응답한 비율이 낮아졌다.

10) 소득 크레바스란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기간을 의미하며, 은퇴 후 소득 공백 기간 혹은 연금 공백 기간이라고도 일컫음

〈표 Ⅲ-49〉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 인지 여부

(단위: %, 명)

| 구분  | 알고 있다  |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한 뜻은 모른다 | 들어본 적도 없고, 무슨 뜻인지 모른다 | 응답자 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11.3                   | 38.9                  | <b>49.9</b> | 355 |
|     | 30대    | 17.6                   | 40.6                  | 41.8        | 340 |
|     | 40대    | 18.8                   | 43.8                  | 37.4        | 409 |
|     | 50대    | 24.5                   | <b>44.3</b>           | 31.2        | 404 |
|     | 60대    | <b>32.7</b>            | 43.8                  | 23.5        | 162 |
| 전체  | 19.7   | 42.2                   | 38.1                  | 1,699       |     |

주: 소득크레바스는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기간을 의미함

다음으로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에 대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77.9%가 '걱정은 되지만, 아직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은퇴 후 소득 공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의 '걱정은 되지만, 아직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60대의 경우 34.0%가 '현재 잘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해 다른 연령대보다는 잘 준비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0〉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 준비 정도

(단위: %, 명)

| 구분  | 현재 잘 준비하고 있다 | 걱정은 되지만, 아직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 |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 응답자 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9.3                       | 74.4             | <b>16.3</b> | 355 |
|     | 30대          | 13.2                      | 80.3             | 6.5         | 340 |
|     | 40대          | 12.0                      | <b>85.1</b>      | 2.9         | 409 |
|     | 50대          | 16.6                      | 81.2             | 2.2         | 404 |
|     | 60대          | <b>34.0</b>               | 54.3             | 11.7        | 162 |
| 전체  | 14.9         | 77.9                      | 7.2              | 1,670       |     |

주: 소득크레바스는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기간을 의미함

은퇴소득 관련 위험을 직접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연금 보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중복응답을 허용해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 예상대로 강제 가입 성격을 갖고 있는 공적연금의 가입률이 69.2%로 가장 높았고, 퇴직연금이 38.6%, 개인연금 38.0%, 미가입 10.8%, 모르겠음 5.7%의 순으로 높았으며, 주택연금 가입률은 0.6%로 매우 낮았다. 연령별로 비슷한 가입 분포를 보였으나, 50대 및 60대의 경우엔 개인연금 가입률이 퇴직연금 가입률보다 다소 높았다.

〈표 III-51〉 연금 보유 여부(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        | 공적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주택연금 | 미가입  | 모르겠음 | 응답자 수 |
|-----|--------|-------------|------|------|------|------|------|-------|
| 연령대 | 20대 이하 | <b>44.8</b> | 24.8 | 20.3 | 0.0  | 23.1 | 16.6 | 355   |
|     | 30대    | <b>69.4</b> | 47.1 | 37.9 | 0.0  | 7.9  | 4.1  | 340   |
|     | 40대    | <b>72.4</b> | 41.8 | 40.6 | 0.0  | 9.3  | 2.9  | 409   |
|     | 50대    | <b>81.7</b> | 42.6 | 47.3 | 1.5  | 6.2  | 1.2  | 404   |
|     | 60대    | <b>83.3</b> | 32.7 | 47.5 | 2.5  | 4.9  | 3.1  | 162   |
| 전체  |        | <b>69.2</b> | 38.6 | 38.0 | 0.6  | 10.8 | 5.7  | 1,670 |

- 주: 1)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포함됨  
 2)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 IRP, 개인형 IRP 등이 포함됨  
 3)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일반 및 변액) 등이 포함됨

개인의 가입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의 미가입 사유를 조사하였는데, 먼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및 연금보험을 포함한 개인연금의 미가입 사유에 대해 설문하였다. 설문 결과, '소득부족으로 저축 여력이 없어서'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5%로 가장 높은 미가입 사유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를 선택한 응답자도 22.4%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대부분 연령대에서 '소득부족으로 저축 여력이 없어서'를 가장 높은 미가입 사유로 응답한 반면, 20대 이하의 경우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가 가장 높은 미가입 사유로 조사되었다.

〈표 Ⅲ-52〉 개인연금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단위: %, 명)

| 구분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응답자 수 |
|-----|--------|-----|------|-----|-----|-------------|-------------|-------|
| 연령대 | 20대 이하 | 3.9 | 9.2  | 5.3 | 5.3 | 34.3        | <b>42.0</b> | 283   |
|     | 30대    | 6.6 | 14.7 | 4.7 | 7.1 | <b>42.7</b> | 24.2        | 220   |
|     | 40대    | 3.7 | 16.0 | 5.3 | 7.8 | <b>53.9</b> | 13.2        | 245   |
|     | 50대    | 3.8 | 9.9  | 7.0 | 4.7 | <b>65.7</b> | 8.9         | 219   |
|     | 60대    | 2.4 | 10.6 | 4.7 | 5.9 | <b>63.5</b> | 12.9        | 88    |
| 전체  |        | 4.3 | 12.2 | 5.5 | 6.2 | <b>49.5</b> | 22.4        | 1,055 |

주: 1)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및 연금보험이 포함됨

- 2) ① 수수료가 비싸서  
 ② 수익률이 낮아서  
 ③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이 충분할 것 같아서  
 ④ 다른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은퇴소득을 해결할 수 있어서  
 ⑤ 소득부족으로 저축 여력이 없어서  
 ⑥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

주택연금 가입조건인 55세 이상이면서, 주택연금에 미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 ‘집을 갖고 있지 않아서’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입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서(보유주택 수, 주택가격 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서 집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입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서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높았다. 50대의 경우 ‘다른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은퇴소득을 해결할 수 있어서’가 ‘가입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서(보유주택 수, 주택가격 등)’,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이어서’,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의 사유보다 높게 나타났다. 60대의 경우 다른 연금의 수급기에 접어든 응답자일 가능성이 높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이 충분할 것 같아서’가 ‘다른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은퇴소득을 해결할 수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이 있어서’,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보다 높은 비율의 사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53〉 주택연금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단위: %, 명)

| 구분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응답자 수 |
|-----|-----|------|------|------|------|------|------|-------|
| 연령별 | 50대 | 25.5 | 14.9 | 14.9 | 18.1 | 12.8 | 13.8 | 94    |
|     | 60대 | 20.3 | 20.3 | 17.7 | 10.8 | 17.1 | 13.9 | 159   |
| 전체  |     | 22.2 | 18.3 | 16.7 | 13.5 | 15.5 | 13.9 | 2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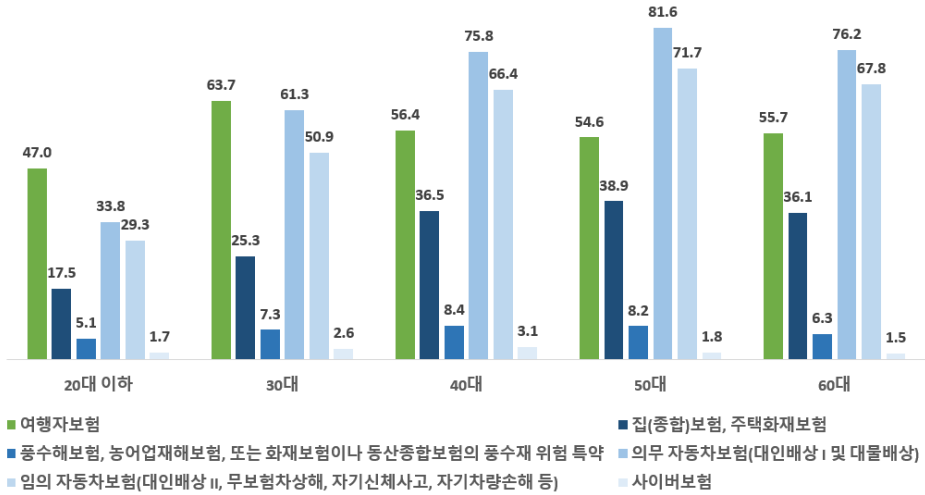
- 주: ① 집을 갖고 있지 않아서  
 ② 가입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서(보유주택 수, 주택가격 등)  
 ③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이 충분할 것 같아서  
 ④ 다른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은퇴소득을 해결할 수 있어서  
 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이어서  
 ⑥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

## 라. 재산손해 관련 위험

재산손해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여행자보험, 집(종합)보험 및 주택화재보험, 풍수해보험·농어업재해보험 또는 화재보험·동산종합보험의 풍수해위험 특약, 의무자동차보험, 임의자동차보험, 사이버보험으로 구분해 가입경험 및 보유 여부를 조사하였다. 먼저 연령별 여행자보험의 가입경험을 살펴보면, 30대의 가입경험이 63.7%로 가장 높았고, 40대, 60대, 50대, 20대 이하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종합)보험 및 주택화재보험은 주택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40대 이상이 40대 미만의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가입률은 모든 연령대가 40% 미만의 보유 비율을 나타냈다.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또는 화재보험이나 동산종합보험의 풍수재위험 특약 등 자연재해와 관련된 보험의 보유는 모든 연령대가 10% 미만의 미미한 보유비율을 나타냈다.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의 의무자동차보험은 50대가 81.6%, 40대가 75.8%, 60대가 76.2%로 높은 비율로 보유하고 있으며, 30대의 경우도 61.3%의 보유비율을 보였다. 가장 연령이 낮은 20대 이하의 경우 33.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낮았다. 대인배상II, 무보험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상하는 임의자동차보험 경우에도 유사한 연령대별 보유 비율 분포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보험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 걸쳐 4% 미만의 매우 낮은 보유율을 보였으나, 40대 응답자의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고, 60대 응답자의 비율이 1.5%로 가장 낮은 보유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령대 간 차이는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또는 풍수해위험 특약과 사이버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림 III-3〉 연령대별 재산손해 관련 보험가입 경험 및 보유 여부

(단위: %, 명)



- 주: 1) 여행자보험은 가입 경험임  
 2) 집(종합)보험 및 주택화재보험,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또는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의 풍수재위험특약, 의무자동차보험, 임의자동차보험, 사이버보험은 보유 여부임  
 3) 여행자보험 가입 관련 평균차이 검정 F-값: 4.99\*\*\*  
 4) 집(종합)보험 및 주택화재보험 가입 관련 평균차이 검정 F-값: 14.99\*\*\*  
 5)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또는 풍수해위험 특약 가입 관련 평균차이 검정 F-값: 1.09  
 6) 의무자동차보험 가입 관련 평균차이 검정 F-값: 72.49\*\*\*  
 7) 임의자동차보험 가입 관련 평균차이 검정 F-값: 51.82\*\*\*  
 8) 사이버보험 가입 관련 평균차이 검정 F-값: 0.88  
 9) 응답자 수: 20대 이하(355), 30대(344), 40대(417), 50대(452), 60대(332)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본 적이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연령대와 상관없이 모두 '여행자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가 가장 높은 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40% 이상으로 조사되어서 다른 이유의 비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 이하 경우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의 사유가 3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행자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의 사유에 관해선 50대가 가장 높게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54〉 여행자보험 미가입 경험 사유(1순위 응답)

(단위: %, 명)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응답자 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6.4         | <b>41.5</b> | 5.3 | 0.5 | 5.9 | 1.6 | 6.4  | 31.9 | 0.5   | 188 |
|     | 30대    | 8.8         | <b>39.2</b> | 3.2 | 3.2 | 8.0 | 0.8 | 9.6  | 26.4 | 0.8   | 125 |
|     | 40대    | 8.8         | <b>46.7</b> | 4.4 | 3.8 | 6.6 | 1.1 | 7.7  | 18.7 | 2.2   | 182 |
|     | 50대    | 7.3         | <b>54.1</b> | 2.9 | 4.4 | 6.8 | 1.5 | 6.3  | 15.6 | 1.0   | 205 |
|     | 60대    | 5.4         | <b>45.6</b> | 2.0 | 4.1 | 4.1 | 0.7 | 6.8  | 27.9 | 3.4   | 147 |
| 전체  | 7.3    | <b>46.0</b> | 3.7         | 3.2 | 6.3 | 1.2 | 7.2 | 23.6 | 1.5  | 847   |     |

- 주: ①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② 여행자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  
 ③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여행지에서 발생한 손해를 해결할 수 있어서  
 ④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보상 제외 항목 때문에  
 ⑤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  
 ⑥ 보험금청구 상황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같지 않아서  
 ⑦ 소득부족으로 가입 여력이 없어서  
 ⑧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  
 ⑨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과 묶여 있는 상품만 있어서

다음으로 집보험 및 주택화재 보험 미가입 사유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20대 이하를 제외하고는 모두 '집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가 가장 높은 미가입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가 가장 높은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부족으로 가입 여력이 없어서'의 사유도 모든 연령대 및 세대가 15% 내외의 비율을 보여 '집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와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II-55〉 집보험 및 주택화재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단위: %, 명)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응답자 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6.1         | 26.6        | 2.4 | 4.1 | 5.1 | 1.7  | 16.7 | <b>35.8</b> | 1.4   | 293 |
|     | 30대    | 7.8         | <b>35.4</b> | 4.7 | 7.0 | 4.3 | 0.8  | 11.7 | 26.8        | 1.6   | 257 |
|     | 40대    | 13.2        | <b>44.5</b> | 5.3 | 3.8 | 6.0 | 1.9  | 11.7 | 10.9        | 2.6   | 265 |
|     | 50대    | 10.9        | <b>41.3</b> | 4.7 | 6.5 | 6.5 | 2.2  | 14.9 | 9.4         | 3.6   | 276 |
|     | 60대    | 14.2        | <b>43.9</b> | 1.4 | 4.2 | 5.2 | 0.5  | 16.5 | 10.4        | 3.8   | 212 |
| 전체  | 10.2   | <b>37.9</b> | 3.8         | 5.1 | 5.4 | 1.5 | 14.3 | 19.3 | 2.5         | 1,303 |     |

- 주: ①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② 집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  
 ③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발생가능한 주택관련 손해를 해결할 수 있어서  
 ④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보상 제외 항목 때문에  
 ⑤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  
 ⑥ 보험금청구 상황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같지 않아서  
 ⑦ 소득부족으로 가입 여력이 없어서  
 ⑧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  
 ⑨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과 묶여 있는 상품만 있어서

자연재해 보장과 관련 있는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풍수재위험 특약 등의 미가입 사유는 연령대와 관련 없이 일관적으로 ‘풍수해를 입을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인 것으로 응답되었다. 40대 및 50대의 경우 ‘풍수해를 입을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의 사유가 5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56〉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풍수재위험 특약 등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단위: %, 명)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응답자 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4.7         | <b>40.4</b> | 4.7 | 4.2 | 4.2 | 1.5 | 9.5  | 30.0 | 0.9   | 337 |
|     | 30대    | 5.3         | <b>39.5</b> | 1.6 | 4.1 | 5.0 | 3.4 | 8.2  | 32.3 | 0.6   | 319 |
|     | 40대    | 8.4         | <b>51.3</b> | 5.0 | 5.8 | 3.4 | 1.8 | 6.8  | 16.5 | 1.0   | 382 |
|     | 50대    | 6.3         | <b>54.5</b> | 2.2 | 3.9 | 3.1 | 1.2 | 9.6  | 17.6 | 1.7   | 415 |
|     | 60대    | 8.7         | <b>51.1</b> | 3.2 | 1.6 | 5.1 | 1.3 | 11.6 | 15.8 | 1.6   | 311 |
| 전체  | 6.7    | <b>47.8</b> | 3.3         | 4.0 | 4.1 | 1.8 | 9.1 | 22.1 | 1.2  | 1,764 |     |

- 주: ①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② 풍수해를 입을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  
 ③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발생 가능한 손해를 해결할 수 있어서  
 ④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보상 제외 항목 때문에  
 ⑤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  
 ⑥ 보험금청구 상황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같지 않아서  
 ⑦ 소득부족으로 가입 여력이 없어서  
 ⑧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  
 ⑨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과 묶여 있는 상품만 있어서



연령별 임의자동차보험 미가입 사유는 모든 연령대에서 '임의자동차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 이하 및 30대의 경우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도 3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II-57〉 임의자동차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단위: %, 명)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응답자 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6.8         | <b>38.6</b> | 2.4 | 2.8 | 2.4  | 2.4  | 10.0 | 31.5 | 3.2   | 251 |
|     | 30대    | 3.0         | <b>36.7</b> | 8.3 | 3.6 | 1.8  | 1.8  | 9.5  | 30.8 | 4.7   | 169 |
|     | 40대    | 7.1         | <b>39.3</b> | 6.4 | 3.6 | 5.0  | 2.1  | 5.7  | 25.0 | 5.7   | 140 |
|     | 50대    | 5.5         | <b>41.4</b> | 4.7 | 4.7 | 10.9 | 0.0  | 14.8 | 13.3 | 4.7   | 128 |
|     | 60대    | 12.1        | <b>30.8</b> | 0.9 | 5.6 | 6.5  | 0.9  | 20.6 | 16.8 | 5.6   | 107 |
| 전체  | 6.5    | <b>37.7</b> | 4.5         | 3.8 | 4.7 | 1.6  | 11.3 | 25.3 | 4.5  | 795   |     |

주: 1) 임의자동차보험에는 대인배상Ⅱ, 무보험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이 포함됨

- 2) ①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 ② 임의자동차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
- ③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발생 가능한 손해를 해결할 수 있어서
- ④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보상 제외 항목 때문에
- ⑤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
- ⑥ 보험금청구 상황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같지 않아서
- ⑦ 소득부족으로 가입 여력이 없어서
- ⑧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
- ⑨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과 묶여 있는 상품만 있어서

전체 응답자의 사이버보험 미가입 사유로는 '사이버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가 36.5%로 가장 높았고,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가 36.0%로 그 뒤를 이었다. 비록 비율에 큰 차이가 있으나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가 6.9%로 그다음 순위의 미가입 사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응답자의 경우 '사이버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의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 이하 응답자의 경우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의 사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III-58〉 사이버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단위: %, 명)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응답자 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4.6         | 30.4        | 4.3 | 2.6 | 5.4 | 1.7 | 9.2  | <b>41.0</b> | 0.9   | 349 |
|     | 30대    | 2.7         | 33.1        | 2.1 | 6.0 | 6.6 | 2.7 | 4.8  | <b>41.5</b> | 0.6   | 335 |
|     | 40대    | 7.9         | <b>39.9</b> | 2.5 | 3.7 | 7.2 | 1.5 | 5.7  | 31.2        | 0.5   | 404 |
|     | 50대    | 5.4         | <b>37.8</b> | 1.6 | 3.4 | 7.2 | 1.6 | 6.8  | 35.8        | 0.5   | 444 |
|     | 60대    | 4.9         | <b>40.7</b> | 1.5 | 3.1 | 8.0 | 1.2 | 8.6  | 31.2        | 0.9   | 327 |
| 전체  | 5.2    | <b>36.5</b> | 2.4         | 3.7 | 6.9 | 1.7 | 6.9 | 36.0 | 0.6         | 1,859 |     |

- 주: ①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② 사이버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  
 ③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할 수 있어서  
 ④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보상 제외 항목 때문에  
 ⑤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  
 ⑥ 보험금청구 상황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같지 않아서  
 ⑦ 소득부족으로 가입 여력이 없어서  
 ⑧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  
 ⑨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과 묶여 있는 상품만 있어서

마지막으로 홍수나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살고 있는 집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가정해 응답자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조사 결과는 '이러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 없고, 정부 지원에 의존할 것임'이 26.5%로 가장 높았고, '내가 가입한 보험이 일정 금액까지 보험금을 지불할 것임'이 21.6%, '어떤 사고/상황이 내가 가입한 보험에 포함되는지 확실치 않음'이 18.2%, '정확한 보장이거나 보장 제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확실치 않음'이 14.9%, '모르겠음/대답하고 싶지 않음'이 12.5%, '내가 가입한 보험이 모든 또는 대부분의 수리비를 보장할 것임'이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련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존재 여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정부지원에 의존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 조사에서도 '이러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 없고, 정부 지원에 의존할 것임'이 대부분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40대 응답자의 경우엔 '내가 가입한 보험이 일정 금액까지 보험금을 지불할 것임'이 25.7%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 IV

## 보험가입 및 보장격차 분석

## 1. 보험가입 결정요인 분석

본 절에서는 III장에서 살펴본 개별 보험(연금 포함)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분석모형은 종속변수가 1(가입)과 0(미가입)의 값을 가지는 이산변수(Discrete variable)임을 감안해 프로빗(Probit)모형을 사용하였다. 동 모형에서 설명변수는 주된 관심인 연령 관련 변수(연령, 연령의 제곱)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sup>11)</sup> 또한, 연령 관련 변수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보험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별, 기혼 여부, 자녀 보유 여부, 가족 수, 교육 수준과 같은 인구 사회적 특성과 소득수준도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다.<sup>12)</sup> 기존연구(Yaari 1965; Stiglitz 1969; Ericson et al. 2021)에 따르면 위험감수도(혹은 위험회피도)와 위험에 대한 인식도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위험감수도와 개별 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도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개별 독립변수에 해당된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는 이분산(Heteroskedasticity)을 교정한 이분산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 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했다.

우선 건강, 사망 및 간병위험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사망보험, 상해보험, 자신을 위한 간병보험,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IV-1>과 같다. 보고된 회귀계수를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일수록, 기혼일수록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질병보험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일수록, 기혼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입확률이 높았으며, 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입확률이 낮았다. 사망보험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혼일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입확률이 높았으며, 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입확률이 낮았다. 기혼 및 자녀 변수와 사망보험 가입확률 간의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난 것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 및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거나 상속 동기

11) 연령의 제곱은 연령과 종속변수 간의 비선형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감안해 설명변수에 포함시켰음

12) 성별, 기혼 여부, 자녀 보유 여부, 교육 수준(대졸 여부)은 0과 1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며, 가족 수 및 소득수준은 연속된 값을 가지는 연속변수임

로 인해 사망보험 가입 니즈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상해보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혼일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입확률이 높았으며, 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입확률이 낮았다. 자신을 위한 간병보험과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 모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입확률이 높았으며,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의 경우 연령과 부(-)의 관계가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연령과 보험가입 간의 비선형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연령제곱변수의 추정계수는 자신을 위한 간병보험 가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리고 연령제곱변수 모두 연령변수와 반대의 부호를 보이고 있어, 연령과 보험가입 간의 비선형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사망보험, 상해보험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입성향이 높아지다가 고연령에서 다시 낮아지는 역U자형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소득수준은 건강, 사망 및 간병위험을 보장하는 모든 보험의 가입 가능성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나서 일정 소득이 있어야만 민영보험 가입 여력이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위험감수도 변수는 자신을 위한 간병보험 가입확률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고 나머지 보험가입 확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아서 대체로 위험감수성향과 건강, 사망 및 간병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 가능성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사망보험, 상해보험 가입 요인을 추정하기 위한 회귀모형에 신체적 건강위험에 대한 염려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시켰는데, 신체적 건강위험에 대한 염려정도 변수는 상해보험 가입확률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고 나머지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사망보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신체적 건강에 대한 염려 수준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가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가입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주관적 염려 수준이 높더라도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신을 위한 간병보험 가입 관련 회귀모형과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 가입 관련 회귀모형에 각각 자신의 간병에 대한 염려 수준 변수와 가족의 간병에 대한 염려 수준 변수도 포함시켰는데, 두 변수 모두 간병보험 가입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 및 가족의 간병에 대한 주관적 염려 수준의 증가가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 보험가입 프로빗(Probit) 분석 결과: 건강, 사망 및 간병위험

| 구분          | 실손의료<br>보험           | 질병보험                 | 사망보험                 | 상해보험                 | 간병보험<br>(자신)        | 간병보험<br>(가족)        |
|-------------|----------------------|----------------------|----------------------|----------------------|---------------------|---------------------|
| 연령          | 0.085***<br>(0.020)  | 0.119***<br>(0.019)  | 0.106***<br>(0.018)  | 0.044**<br>(0.018)   | 0.021<br>(0.022)    | -0.291**<br>(0.140) |
| 연령제곱        | -0.001***<br>(0.000) | -0.001***<br>(0.000) | -0.001***<br>(0.000) | -0.001***<br>(0.000) | -0.000<br>(0.000)   | 0.003**<br>(0.001)  |
| 여성          | 0.327***<br>(0.071)  | 0.372***<br>(0.068)  | 0.064<br>(0.062)     | -0.070<br>(0.062)    | 0.094<br>(0.074)    | 0.632*<br>(0.360)   |
| 기혼          | 0.331***<br>(0.112)  | 0.297***<br>(0.109)  | 0.175*<br>(0.096)    | 0.222**<br>(0.097)   | -0.054<br>(0.120)   | 0.044<br>(0.419)    |
| 자녀          | 0.184<br>(0.128)     | 0.182<br>(0.124)     | 0.315***<br>(0.109)  | 0.489***<br>(0.110)  | 0.119<br>(0.134)    | -0.378<br>(0.359)   |
| 가족 수        | -0.038<br>(0.033)    | -0.056*<br>(0.031)   | -0.075**<br>(0.030)  | -0.137***<br>(0.030) | -0.060*<br>(0.038)  | 0.006<br>(0.165)    |
| 대출          | 0.055<br>(0.088)     | 0.046<br>(0.083)     | -0.060<br>(0.079)    | -0.037<br>(0.078)    | -0.105<br>(0.093)   | 0.159<br>(0.449)    |
| 소득수준        | 0.076***<br>(0.021)  | 0.071***<br>(0.020)  | 0.106***<br>(0.018)  | 0.074***<br>(0.019)  | 0.068***<br>(0.021) | 0.299***<br>(0.090) |
| 위험감수도       | 0.033<br>(0.030)     | -0.014<br>(0.028)    | 0.029<br>(0.026)     | 0.012<br>(0.026)     | 0.069**<br>(0.032)  | -0.040<br>(0.141)   |
| 신체적건강<br>염려 | 0.035<br>(0.032)     | -0.018<br>(0.031)    | -0.045<br>(0.028)    | -0.061**<br>(0.029)  | -<br>-              | -<br>-              |
| 자신간병<br>염려  | -<br>-               | -<br>-               | -<br>-               | -<br>-               | -0.027<br>(0.028)   | -<br>-              |
| 가족간병<br>염려  | -<br>-               | -<br>-               | -<br>-               | -<br>-               | -<br>-              | 0.196<br>(0.155)    |
| 관측치 수       | 1,892                | 1,892                | 1,892                | 1,892                | 1,892               | 127                 |

주: 1) 괄호 안의 표준오차는 이분산강건표준오차임

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다음으로 은퇴 및 소득흐름 위험과 관련해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개인연금 및 주택연금 가입분석을 시도했으며, 분석 결과는 <표 IV-2>와 같다. 분석 결과, 연령은 개인연금 가입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연령제곱변수는 개인연금 가입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과 개인연금 가입 간의 비선형관계 존재성이 확인되었으며, 역U자형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머지 변수 관련해서는 여성일수록, 대출 이상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위험감수도가 높을수록 개인연금 가입확률이 증가했다. 이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 유인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일수록 금융지식이 높아 민간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연금을 보다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정 소득 이상이어야만 개인연금 가입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은퇴준비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으면 개인연금 가입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석모형에서 동시성(Simultaneity)에 의한 내생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반대 방향으로 개인연금 가입확률이 높아질 때 은퇴준비에 대한 염려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 즉, 부(-)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의 경우에도 연령이 가입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 연령제곱은 가입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효과가 나타나서 역U자형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sup>13)</sup> 나머지 변수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가족 수가 증가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입확률이 증가했으며, 대출 이상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입확률이 감소했다. 이외에 다른 변수는 주택연금 가입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13) 주택연금 가입은 만 55세 이상부터 가능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IV-2〉 연금 및 보험가입 프로빗(Probit) 분석 결과: 은퇴준비 위험

| 구분         | 개인연금                       | 주택연금                      |
|------------|----------------------------|---------------------------|
| 연령         | <b>0.075***</b><br>(0.022) | <b>0.524**</b><br>(0.216) |
| 연령제곱       | -0.001***<br>(0.000)       | -0.005**<br>(0.002)       |
| 여성         | 0.161**<br>(0.068)         | -0.042<br>(0.256)         |
| 기혼         | -0.053<br>(0.102)          | 0.059<br>(0.265)          |
| 자녀         | 0.123<br>(0.117)           | -0.325<br>(0.255)         |
| 가족 수       | -0.001<br>(0.032)          | 0.273***<br>(0.085)       |
| 대졸         | 0.221**<br>(0.095)         | -0.442*<br>(0.235)        |
| 소득수준       | 0.146***<br>(0.020)        | 0.067<br>(0.055)          |
| 위험감수도      | 0.119***<br>(0.030)        | 0.195<br>(0.132)          |
| 은퇴준비<br>염려 | -0.085***<br>(0.027)       | 0.056<br>(0.112)          |
| 관측치 수      | 1,662                      | 1,662                     |

주: 1) 괄호 안의 표준오차는 이분산강건표준오차임

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마지막으로 재산손해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인 여행자보험, 집보험 및 주택화재보험, 풍수해보험·농어업보험·풍수재위험 특약, 임의자동차보험, 사이버보험의 가입분석 결과는 〈표 IV-3〉에 보고하였다. 여행자보험의 경우 여성일수록, 기혼일수록, 대졸 이상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입확률이 높아졌다. 집보험 및 주택화재보험은 여성일수록, 기혼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재산손해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을수록 가입확률이 높아졌다. 이는 재산손해 위험에 대한 주관적 염려 수준이 높을수록 직접적인 재산손해와 관련 있는 집보험 및 주택화재보험 가입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직관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풍수해보험·농어업보험·풍수재위험 특약도 재산손해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을수록 가입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앞서 언급한 직관과 일치된 결과로 보인다. 임의자동차

보험은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자녀가 있을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 때 가입확률이 높아졌으나, 여성일수록 가입확률이 낮아졌다. 연령제곱변수는 임의자동차보험 가입확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어 연령과 보험가입 간에 비선형관계가 확인되어 역U자형 형태가 존재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사이버보험의 경우 기혼일수록 가입확률이 낮아졌으나, 자녀가 있을수록 그리고 위험감수도가 높을수록 가입확률이 높아졌다.

〈표 IV-3〉 보험가입 프로빗(Probit) 분석 결과: 재산손해위험

| 구분          | 여행자<br>보험           | 집보험,<br>주택화재<br>보험  | 풍수해보험,<br>농어업보험,<br>풍수재위험 특약 | 임의자동차보험                    | 사이버보험               |
|-------------|---------------------|---------------------|------------------------------|----------------------------|---------------------|
| 연령          | -0.004<br>(0.018)   | 0.028<br>(0.020)    | 0.031<br>(0.030)             | <b>0.097***</b><br>(0.018) | 0.044<br>(0.044)    |
| 연령제곱        | -0.000<br>(0.000)   | -0.000<br>(0.000)   | -0.000<br>(0.000)            | -0.001***<br>(0.000)       | -0.001<br>(0.000)   |
| 여성          | 0.249***<br>(0.062) | 0.128**<br>(0.064)  | 0.106<br>(0.090)             | -0.335***<br>(0.063)       | 0.003<br>(0.134)    |
| 기혼          | 0.256***<br>(0.094) | 0.193**<br>(0.097)  | -0.064<br>(0.136)            | 0.408***<br>(0.093)        | -0.379*<br>(0.224)  |
| 자녀          | 0.043<br>(0.108)    | 0.107<br>(0.110)    | 0.231<br>(0.167)             | 0.292***<br>(0.106)        | 0.676***<br>(0.250) |
| 가족수         | -0.038<br>(0.028)   | 0.018<br>(0.029)    | -0.001<br>(0.043)            | 0.026<br>(0.028)           | 0.007<br>(0.064)    |
| 대출          | 0.581***<br>(0.079) | 0.016<br>(0.081)    | 0.013<br>(0.115)             | 0.013<br>(0.080)           | -0.170<br>(0.151)   |
| 소득수준        | 0.124***<br>(0.018) | 0.056***<br>(0.018) | 0.023<br>(0.024)             | 0.098***<br>(0.019)        | 0.034<br>(0.038)    |
| 위험감수도       | -0.010<br>(0.025)   | 0.029<br>(0.026)    | 0.060<br>(0.038)             | 0.034<br>(0.026)           | 0.106*<br>(0.056)   |
| 재산손해<br>염려  | -0.020<br>(0.024)   | 0.117***<br>(0.025) | 0.093***<br>(0.035)          | 0.035<br>(0.025)           | -                   |
| 사이버손해<br>염려 | -                   | -                   | -                            | -                          | 0.018<br>(0.048)    |
| 관측치 수       | 1,887               | 1,887               | 1,887                        | 1,887                      | 1,887               |

주: 1) 괄호 안의 표준오차는 이분산강건표준오차임

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이상 보험가입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동 분석의 주요 설명변수인 연령변수는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사망보험, 상해보험,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 개인연금, 주택연금, 임의자동차보험 가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사망보험, 개인연금, 임의자동차보험의 가입확률은 높아지는 반면,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의 가입확률은 낮아졌다. 다만, 이러한 보험의 가입확률과 연령과의 비선형관계가 존재하여 가입확률이 증가(감소)하면서 그 증가폭(감소폭)이 점차 축소(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보험 종목(연금 포함)에 대해선 연령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2. 보장격차 정량분석: 건강, 은퇴준비 및 자연재해 위험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연금 포함) 가입 및 수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면 응답자가 직면하고 있는 보장격차(Protection gap)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Schanz(2018)는 “글로벌 보험 보장격차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보험 보장격차는 ‘사고나 위험으로 인한 총손실금액과 보험을 통해 손실금액(실제 구매한 보험의 보장금액) 간의 차이’로 정의될 수 있으나, 모든 위험에 대해 정교하게 측정되기 어려우며 주관성을 가진다고 언급했다. 또한, EIOPA(2022)는 위험 노출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보험 활용을 중심으로 보험 보장격차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건강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종목 중 비교적 보험가입률이 높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지불된 금액을 제외하고 직접 지불한 의료비 중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충당된 비율을 조사항목으로 포함하였다.<sup>14)</sup> 실손의료보험을 보유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금 비율을 산정한 결과, 실손의료보험금 비율은 41.6%였으며, 이를 보험 보장격차로 단순 환산하기 위해 “100-실손의료보험금 비율” 공식을 사용해 보험 보장격차를 산출하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 보장격

14) Schanz(2018)는 의료보장(Healthcare)와 관련된 보장격차를 보험회사나 정부가 아닌 개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불하는 본인부담금(Out-of-pocket expense)으로 정의했음.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해 총의료비 중 보험회사를 통해 지불되는 실손의료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보장격차를 파악하는 조사항목으로 포함했음.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음. 귀하께서 직접 지불하신 금액(국민건강보험금을 제외하고 직접 지불한 금액) 중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으신 비율은 얼마나 되십니까? 직접 지불한 의료비 중 약 ( )% [응답범위: 0~100%]

차는 5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질병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 보험금을 제외하고 직접 지출하는 의료비 중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되지 않은 비율은 58.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사한 방식으로 연령대별 보장격차를 산정하면, 연령대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격차는 20대 이하가 66.1%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도 60.5%로 높은 편이었다. 40대 이상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장격차는 전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장격차 수준인 58.4%보다는 모두 낮은 수준이었다. 연령대별 실손의료보험 보장격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V-4〉 실손의료보험 보장격차

(단위: %)

| 구분  | 실손의료보험금 비율 | 보험 보장격차 |
|-----|------------|---------|
| 연령대 | 20대 이하     | 33.9    |
|     | 30대        | 39.5    |
|     | 40대        | 45.6    |
|     | 50대        | 42.2    |
|     | 60대        | 46.9    |
| 전체  | 41.6       | 58.4    |

주: 1) 실손의료보험금 비율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직접 지불한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총당된 비율임  
 2) 보험 보장격차는 “100-실손의료보험금 비율”임  
 3) 평균차이 검정 F-값: 4.80\*\*\*

다음으로 은퇴위험을 대비하는 연금 관련 보장격차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미은퇴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수령금액이 은퇴 전 월 소득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는지를 조사하였다.<sup>15)</sup>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합친 공·사적연금의 예상 소득대체율은 50.1%인 것으로 조사되어서 미은퇴자가 은퇴 후에 예상하는 국민연금은 현재 받고 있는 월평균 근로소득의 50.1%일 것으로 응답되었다. 보장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70-예상소득대체율”공식을 사용해 단순 변환한 결과, 국민연금 보장격차는 19.9%인 것으로 파악되었다.<sup>16)</sup> 즉, 은퇴 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해도 은퇴 전 소득과 비슷

15) Schanz(2018)는 연금 관련 보장격차를 소득대체율(replacement rate)로 간접적으로 파악하였으며, 본 연구도 이를 따라 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소득) 개념을 도입해 연금 관련 보장격차를 조사했음.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음. 귀하께서 받게될 월 국민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은퇴 전 소득의 어느 정도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은퇴 전 월 소득은 근로기간 중 평균 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은퇴 전 월 소득의 약 ( )% [응답범위: 0~100%]

한 수준을 유지하기에 19.9%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연령대별로는 가장 연령대가 낮고 은퇴시기와 멀리 떨어진 20대 이하가 31.8%의 보장격차인 것으로 산정되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크게 높은 보장격차 수준을 나타내었다. 30대 이상 연령대의 경우 14.7~18.0% 수준의 보장격차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 보장격차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V-5〉 국민·퇴직·개인연금 보장격차

(단위: %)

| 구분  | 공사연금 예상 소득대체율 | 공사연금 보장격차   |
|-----|---------------|-------------|
| 연령대 | 20대 이하        | <b>31.8</b> |
|     | 30대           | 14.7        |
|     | 40대           | 17.7        |
|     | 50대           | 18.0        |
|     | 60대           | 16.9        |
| 전체  | 50.1          | 19.9        |

- 주: 1) 예상 소득대체율은 미은퇴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대비 향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월 연금액의 비중임  
 2) 연금 보장격차는 “70-예상소득대체율”임  
 3) 평균차이 검정 F-값: 4.26\*\*\*

개별연금의 보장격차 관련해서 우선 국민연금의 예상 소득대체율은 37.7%인 것으로 조사되어서 미은퇴자가 은퇴 후에 예상하는 국민연금은 현재 받는 월평균 근로소득의 37.7% 일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에 대응하는 국민연금 보장격차는 32.3%인 것으로 파악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해도 은퇴 전 소득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에 32.3%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의 보장격차 수준이 35.4%로 가장 높게 예상하였으며,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보장격차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령대별 국민연금 보장격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16) 연금 보장격차는 OECD 권고 소득대체율인 70%를 적용해 “70-예상소득대체율”로 접근했음

〈표 IV-6〉 국민연금 보장격차

(단위: %)

| 구분  | 국민연금 예상 소득대체율 | 국민연금 보장격차 |
|-----|---------------|-----------|
| 연령대 | 20대 이하        | 41.0      |
|     | 30대           | 39.4      |
|     | 40대           | 38.3      |
|     | 50대           | 35.1      |
|     | 60대           | 34.6      |
| 전체  | 37.7          | 32.3      |

- 주: 1) 예상 소득대체율은 미은퇴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대비 향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월 연금액의 비중임  
 2) 연금 보장격차는 “70-예상소득대체율”임  
 3) 평균차이 검정 F-값: 4.26\*\*\*

같은 방식으로 퇴직연금 보장격차를 살펴보면, 전체 미은퇴자가 예상하는 예상 소득대체율은 33.6%로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퇴직연금 보장격차는 36.4%로 은퇴 후에 퇴직연금을 수령해도 은퇴 전 소득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에 36.4% 부족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령별로는 50대의 보장격차 수준이 40.7%로 가장 높게 예상되었으며, 40대, 60대, 30대, 20대 이하 순으로 높게 예상되었다. 퇴직연금의 보장격차 관련해서 연령대 간 보장격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V-7〉 퇴직연금 보장격차

(단위: %)

| 구분  | 퇴직연금 예상 소득대체율 | 퇴직연금 보장격차 |
|-----|---------------|-----------|
| 연령대 | 20대 이하        | 41.1      |
|     | 30대           | 38.4      |
|     | 40대           | 29.6      |
|     | 50대           | 29.3      |
|     | 60대           | 34.2      |
| 전체  | 33.6          | 36.4      |

- 주: 1) 예상 소득대체율은 미은퇴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대비 향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월 연금액의 비중임  
 2) 연금 보장격차는 “70-예상소득대체율”임  
 3) 평균차이 검정 F-값: 7.19\*\*\*

연금 보장격차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보장격차에 대해 살펴보았다.<sup>17)</sup> 전체 미응답자의 개인연금 예상 소득대체율은 4.3%로 매우 낮았으며, 이를 70%에서 차감한 보장격차는 95.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연금의 경우에 만기에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 형태로 대부분 수령을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에 비해 보장격차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의 개인연금 보장격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20대 이하, 50대, 40대, 30대 순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보장격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V-8〉 개인연금 보장격차

(단위: %)

| 구분  | 개인연금 예상 소득대체율 | 개인연금 보장격차 |
|-----|---------------|-----------|
| 연령대 | 20대 이하        | 2.8       |
|     | 30대           | 6.0       |
|     | 40대           | 5.2       |
|     | 50대           | 4.6       |
|     | 60대           | 2.7       |
| 전체  | 4.3           | 67.3      |

- 주: 1) 예상소득대체율은 미응답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대비 향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월 연금액의 비중임  
 2) 연금 보장격차는 “70-예상소득대체율”임  
 3) 평균차이 검정 F-값: 6.34\*\*\*

또한, 자연재해 관련 보장격차 가능성 파악을 위해 자연재해로 인해 살고 있는 집에 피해를 입었다는 가정하에 보험이 이러한 피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문하였다.<sup>18)</sup> 조사 결과, 전체 설문자의 26.5%가 관련 재해를 보장하는 보험이 없고, 정부 지원에 의존할 것이라고 응답해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 보장격차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관련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장받더라도 가입한 보험이 모든 또는 대부분의 수리비를 보장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3%에 불과했고, 가입한 보험이 일정 금액까지 보험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1.6% 정도였다. 게다가

17)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이 포함됨

18) EIOPA(2022)의 자연재해 관련 보장격차 가능성을 파악하는 설문을 참조하였으며,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은 “홍수나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살고 계신 집에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음 중 귀하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1개 선택]”

어떤 사고/상황이 가입한 보험에 포함되는지 확실치 않다는 비중이 18.2%, 정확한 보장이나 보장 제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확실치 않다는 비중도 14.9%를 차지하여, 가지고 있는 보험의 활용 능력 부족으로 인한 보장격차 발생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서 대부분 연령대에서도 관련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 없고, 정부 지원에 의존할 것이라는 응답이 다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다만, 40대의 경우엔 가입한 보험이 일정 금액까지는 보험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한 응답이 다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보장 보험의 부재와 더불어 정부 지원에 의존할 것이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가장 낮아 보험보장 격차 발생 가능성도 가장 낮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9〉 자연재해로 인해 살고 계신 집에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한 설명

(단위: %)

| 구분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 연령별 | 20대 이하 | 3.7 | 18.9        | 18.0 | 15.8 | <b>22.8</b> | 20.8 |
|     | 30대    | 6.7 | 17.4        | 20.1 | 16.9 | <b>26.5</b> | 12.5 |
|     | 40대    | 9.1 | <b>25.7</b> | 20.1 | 14.6 | 20.6        | 9.8  |
|     | 50대    | 6.0 | 23.5        | 16.8 | 14.4 | <b>30.8</b> | 8.6  |
|     | 60대    | 5.7 | 21.4        | 15.7 | 13.0 | <b>32.2</b> | 12.0 |
| 전체  |        | 6.3 | 21.6        | 18.2 | 14.9 | <b>26.5</b> | 12.5 |

- 주: 1) 홍수나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살고 있는 집에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해 설문함  
 2) ① 내가 가입한 보험이 모든 또는 대부분의 수리비를 보장할 것임  
 ② 내가 가입한 보험이 일정 금액까지 보험금을 지불 할 것임  
 ③ 어떤 사고/상황이 내가 가입한 보험에 포함되는지 확실치 않음  
 ④ 정확한 보장이나 보장 제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확실치 않음  
 ⑤ 이러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 없고, 정부 지원에 의존할 것임  
 ⑥ 모르겠음/대답하고 싶지 않음

### 3. 보험가입과 상대적 보장격차분석

한편, Schanz(2018)는 사고 혹은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모두 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보험을 적게 구입할수록 보장격차가 커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

한, 보장격차 발생의 원인을 수요측 원인과 공급측 원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수요측 원인에는 구매력(Affordability), 인식도(Awareness), 호감도(Appeal), 신뢰(Trust), 문화 및 사회적 요소(Cultural and social factors), 행동편향성(Behavioral biases)을 포함했으며, 공급측 원인에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제도적 장애(Institutional obstacles), 부보 가능성 제약(Limits to insurability)을 포함시켰다. 즉, 보험가입 정도의 차이도 보장격차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가입하지 않았는지 좀 더 살펴본다면, 상대적 보장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IV-10〉 보험 보장격차 발생 원인

|        | 구분   | 원인 예시                                       |
|--------|--|---|
| 수요측 원인 | 구매력<br>(Affordability)                               | 보험가격 수준, 가처분소득 수준                           |
|        | 인식도<br>(Awareness)                                   | 금융이해력 정도                                    |
|        | 호감도<br>(Appeal)                                      | 보험서비스의 질                                    |
|        | 신뢰<br>(Trust)  | 보험금 지급에 대한 약속                               |
|        | 문화 및 사회적 요소<br>(Cultural and social factors)         | 성숙경제 여부, 선진시장 여부, 종교                        |
|        | 행동편향성<br>(Behavioral biases)                         |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수령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를 잠재적 손실로 간주 |
| 공급측 원인 | 거래비용<br>(Transaction costs)                          | 보험계약갱신, 보험금청구                               |
|        |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br>(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 정보비대칭성                                      |
|        | 제도적 장애<br>(Institutional obstacles)                  | 법적·규제 환경, 규제 수준                             |
|        | 부보 가능성 제약<br>(Limits to insurability)                | 사이버리스크, 데이터 및 계리 인력 부족                      |

자료: Schanz(2018) 내용을 표로 정리함

연령대별 보험 보장격차에 관한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앞에서 보여준 보험가입 분석 결과와 연령대별 보험 미가입 사유를 연결시켜 좀 더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보험가입 분석 결과에서 연령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준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사망보험, 상해보험,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 개인연금, 임의자동차보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연령변수에 해당된 회귀계수의 방향성(Direction)에 따라 상대적 보험 보장격차가 높거나 적다고 가정하고, 이를 Ⅲ장 3절에서 제시한 보험 미가입 사유와 연결시켜 보험 보장격차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연령과 가입확률 간의 정(+)의 관계가 확인되었는데,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20대 이하 및 30대의 경우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 혹은 소득 부족으로 가입여력이 없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주로 인식도(Awareness) 혹은 구매력(Affordability)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 보험 보장격차가 커질 수 있음을 나타냈다. 질병보험의 경우도 연령과 가입확률 간의 정(+)의 관계가 확인됐으며,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20대 이하 및 30대의 미가입 사유에 초점을 맞춰보면,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모르거나, 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인식도(Awareness)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 보험 보장격차가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망보험도 연령과 가입확률 간의 정(+)의 관계였으며, 상대적 연령이 낮은 20대 및 30대는 부양가족이 없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상품에 대한 호감도(Appeal) 부족이 상대적 보험 보장격차 발생에 다른 요인보다 높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상해보험의 경우도 연령과 가입확률 간의 정(+)의 관계가 확인되었는데, 모든 연령대가 '상해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로 응답해 연령대 간에 상대적 보장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뚜렷한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로 미가입 사유를 응답한 비율이 높아져서 상품에 대한 인식도(Awareness) 부족이 상대적 보험 보장격차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과 다르게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의 경우 연령과 가입확률 간의 부(-)의 관계가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50대 및 60대의 경우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가 미가입 사유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상품에 대한 호감도(Appeal) 부족이 상대적 보험 보장격차 발생에 다른 요인보다 높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인연금의 가입확률은 연령변수와 정(+)의 관계였으며, 이를 연령대별 미가입 사유와 연결시켜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 보험에 미가입했다는 비중



이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은퇴시기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20대 및 30대에게 개인연금 미가입으로 인한 상대적 보장격차 해결의 중요성이 은퇴시기에 가까운 40대 및 50대보단 적을 수 있다. 다만, 분석 결과로만 판단할 때 젊은 연령층의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인식도(Awareness)를 제고할 수 있다면, 상대적 보장격차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임의자동차보험은 연령과 가입확률 간의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아서 미가입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연령이 낮아질수록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로 응답한 비율도 높아져서 상품에 대한 인식도(Awareness) 부족도 상대적 보험 보장격차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연령대별 위험관리를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건강위험, 간병 위험, 은퇴위험, 사망위험, 소득흐름위험, 재산손해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수준, 대비방법을 파악하고, 이러한 위험을 직접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험(연금 포함) 가입 현황 및 미가입 사유를 살펴본 후, 어떠한 요인이 보험가입을 결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장격차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각 위험영역별로 위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신체건강, 은퇴준비, 부채상환, 재산손해 관련 위험영역에서는 60대의 염려 수준이 가장 높았고, 본인을 위한 간병, 가족을 위한 간병, 실직, 사이버사고 위험영역에서는 50대의 염려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정신건강 위험에 대해서는 30대의 염려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신건강, 폐업, 사이버사고 위험영역을 제외한 대부분 위험영역에서는 20대의 염려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20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위험에 대한 인식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각각의 위험에 대한 대비수준을 조사한 결과, 개별 위험에 대해서 가장 염려 수준이 높은 연령대가 반드시 관련 위험에 대한 대비수준에서도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신체건강에 대한 염려 수준은 40대가 가장 높았지만, 대비수준은 30대가 가장 높았다. 또한, 은퇴준비의 경우 염려 수준은 40대가 가장 높은 반면, 대비수준은 60대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연령대에 따라 개별 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아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는 요인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신체건강 및 은퇴준비에 있어서 20대는 염려 수준과 대비수준이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연령대의 특성상 다른 연령대보다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은퇴시기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각 위험에 대한 관리 방법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신체건강위험에 대해선 60대를 제외하고 모두 보험가입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배상책임의 경우도 40대 및 50대는 보험가입이 가장 높게 응답된 위험 대비방법이었다. 간병위험 및 은퇴준비위험과 같이 국가가 위험대비에 개입하고 있는 영역의 경우 대부분 연령대에서 공적보험인 장기요양보험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반적인 위험별·연령대

별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을 살펴보면, 위험의 노출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이 존재하는 위험영역일지라도 해당 위험에서 가장 높게 응답된 대비방법이 보험가입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반면, 정기건강검진, 명상, 사회활동, 저축, 예방노력, 비밀번호관리 등 금전적인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인한 대비방법을 가장 높게 응답한 연령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험소비자의 연령대별 위험 대비방법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파악을 위해서는 위험 대비방법으로 보험가입이 선호되지 않는 이유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위험 대비방법이 보험가입을 대체하는 정도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지 등에 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위험영역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연금 포함)가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른 위험영역에 비해 건강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의 가입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보험 종목 중에서도 가입률이 높게 나타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40대의 가입률이 가장 높았고, 60대의 가입률이 가장 낮았다. 은퇴 위험을 보장하는 연금가입의 경우 50대 이상부터는 퇴직연금보다 개인연금의 보유율이 높았다. 재산손해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은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험 종목의 가입률이 높지 않았으며, 특히, 풍수해위험 등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보험과 사이버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의 가입률이 연령대와 무관하게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보험(연금 포함)가입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한 결과, 연령변수는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사망보험, 상해보험,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 개인연금, 임의자동차보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사망보험, 상해보험, 개인연금, 임의자동차보험의 가입확률은 높아지나,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의 가입확률은 낮아졌다.

또한, 보험을 통한 위험보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보장격차에 대한 조사 결과, 실손의료보험 보장격차는 20대 이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30대 및 50대의 보장격차도 높은 수준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은퇴자가 예상하는 공·사적 연금의 보장격차와 관련해서는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보장격차 수준을 예상했으며, 20대를 제외하고는 50대의 보장격차가 가장 높았다. 개별연금의 보장격차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 수급기에 접어든 60대를 제외하고는 50대가 예상하는 보장격차가 가장 컸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50대가 가장 보장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했으며, 개인연금의 경우엔 60대를 제외하고는 20대 이하에서 자신의 보장격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아울러 보험가입 분석 결과와 보험 미가입 사유를 연결지어 연령대에 따른 상대적 보장격차를 살펴본 결과, 건강, 사망 및 간병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종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품에 대한 호감도(Appeal)를 제고하거나,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품에 대한 인식도(Awareness) 부족을 개선하는 것이 상대적 보장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고연령대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및 서비스 개선을 시도하여 호감도를 제고하거나, 젊은 연령층에 특화된 금융교육, 리스크관리 교육 등을 통해 보험에 대한 인식도를 개선할 수 있다면, 건강, 사망 및 간병위험 영역에서 해당계층의 상대적인 보장격차를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인연금은 인식도(Awareness) 부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상대적 보장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임의자동차보험의 경우도 젊은 연령층의 상대적 보장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인식도(Awareness) 부족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앞서 밝힌 대로 본 연구는 보험소비자의 위험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개별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수준을 살펴보고, 보험가입 및 보장격차 분석을 실시하되, 연령대 간 차이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연령대별 상대적 보장격차 완화를 위한 시사점은 보험소비자 측면에서 고찰된 것이며, 금융당국 및 보험회사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엔 설문조사 특성상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특정 연도에 특정 시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지만, 연령대별 위험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자료로 향후 관련 연구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권오익·김규식·황인도(2021), 「한국의 화폐환상에 관한 연구」, 『BOK 경제연구』, 2021-8, 한국은행
- 김도현(2023),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KDI FOCUS』, 통권 121호, 한국개발연구원
- 김진성(2020), 「연령대별로 어떤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가」, 『KB지식 비타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박영호·정나라(2020), 「밀레니얼 세대, 新 투자인류의 출현」, 『미래에셋 은퇴리포트』, NO. 46, 미래에셋은퇴연구소
-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2018),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19 전망: 소비의 거대한 세포분열이 시작된다」, 미래의창
- 손재희·변혜원·오병국·김혜성(2023),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I): 보장격차로 살펴본 국내보험 신시장」, 『CEO Report』, 2023-07호, 보험연구원
- 손재희·정인영(2022), 「디지털 보험시대, 보험소비자 경험 분석: MZ세대를 중심으로」, 『이슈보고서』, 21-20, 보험연구원
- 이경룡(2009), 『보험학원론』, 박영사
- 이정택·임태준·김동겸(2018),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연구보고서』, 2018-10, 보험연구원
- Barsky, R. B., Juster, F. T., Kimball, M. S. and Shapiro, M. D.(1997). "Preference parameters and behavioral heterogeneity: An experimental approach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2), pp. 537~579
- Charness, G. and U. Gneezy(2010), "Portfolio Choice and Risk Attitudes: an Experiment," *Economic Inquiry*, 48(1), pp. 133~146
- Charness, G., T. Garcia, T. Offerman and M. Villeval(2020), "Do Measures of Risk

- Attitude in the Laboratory Predict Behavior under Risk in and Outside of the Laboratory?”,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60, pp. 99~123
- DIW(2022), SOEP-IS 2020-P: Variables from the Individual Question Modules, *SOEP Survey Papers*
- Dohmen, T., D. Huffman, J. Schupp, A. Falk, U. Sunde and G. Wagner(2011), *Individual Risk Attitude: Measurement, Determinants, and Behavioral Consequence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9(3), pp. 522~550
- Eckel, C. and P. Grossman(2008), “Forecasting Risk Attitudes: an Experimental Study Using Actual and Forecast Gamble Choice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68(1), pp. 1~17
- EIOPA(2022), “Consumer Trends Report 2022”,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 Authority
- Eling, M., O. Ghavibazoo and K. Hanewald(2021), “Willingness to Take Financial Risks and Insurance Holdings: A European Survey”, *Journal of Be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 95
- Ericson, K. M., Kircher, P., Spinnewijn, J. and Starc, A.(2021), “Inferring risk perceptions and preferences using choice from insurance menus: theory and evidence”, *The Economic Journal*, 131(634), pp. 713~744
- GFIA(2023), “Global Protection Gaps and Recommendations for Bridging Them”, Global Federation of Insurance Association
- Gneezy, U. and J. Potters(1997), “An Experiment on Risk Taking and Evaluation Period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2), pp. 631~645
- Holt, C. and S. Laury(2002), “Risk Aversion and Incentive Effects,” *American Economic Review*, 92(5), pp. 1644~1655
- Hwang, I.(2024), “Behavioral Aspects of Household Portfolio Choice: Effects of Loss Aversion on Life Insurance Uptake and Savings”, *International Review of*

- Economics and Finance*, 89, pp. 1029~1053
- Mossin, J.(1968), “Aspects of Rational Insurance Purchas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4), pp. 553~568
- Nolte, J. and Y. Hanoch(2023), “Adult age differences in risk perception and risk taking”,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01746
- Noussair, C, S. Trautmann and G. Van de Kuilen(2013) “Higher Order Risk Attitudes, Demographics, and Financial Decisions”, *Review of Economic Studies*, 81(1), pp. 325~355
- Schanz, K.(2018),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Global Insurance Protection Gap”, The Geneva Association
- Sung, J. and S. Hanna(1996), “Factors related to Risk Toleranc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pp. 12~19
- Stiglitz, J. E.(1969), “The Effects of Income, Wealth, and Capital Gains Taxation on Risk Tak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3, No. 2, pp. 263~283
- Swiss Re(2018), “ The Health Protection Gap in Asia: a Modelled Exposure of USD 1.8 trillion”
- Tanaka, T, C. Camerer and Q. Nguyen(2010) “Risk and Time Preferences: Linking Experimental and Household Survey Data from Vietnam”, *American Economic Review*, 100(1), pp. 557~571
- Thaler, R. H. and Sunstein, C. R.(2008).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Viscusi, W. K.(1995). “Government Action, Biases in Risk Perception, and Insurance Decisions”,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Theory*, 20, pp. 93~110
- Yaari, M.(1965). “Uncertain Lifetime, Life Insurance and the Theory of the Consumer”, *Review of Economic Studies*, 32(2), pp. 137~150
- Zhou-Richter, T., M. Browne and H. Gründl(2010). “Don’t They Care? or, Are They Just Unaware? Risk Perception and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77(4), pp. 715~747

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https://cont.insure.or.kr/>)

금융감독원 내연금조회(<https://www.fss.or.kr/fss/lifeplan/anntyLogin/list.do?menuNo=200945>)

브리크 행동 및 불평등 연구소(<https://www.briq-institute.org/>)

Health and Retirement Study(<https://hrs.isr.umich.edu/about>)

Research Data Center SOEP([https://www.diw.de/en/diw\\_01.c.678568.en/research\\_data\\_center\\_soep.html](https://www.diw.de/en/diw_01.c.678568.en/research_data_center_soep.html))



〈부록 표 I-1〉 조사영역별 응답자 특성: 응답자 분포

|        | 구분       | 건강 및 간병   | 은퇴준비 및 사망 | 소득흐름 및 재산손해 |
|--------|----------|-----------|-----------|-------------|
| 성별     | 남성       | 969(51.0) | 969(51.0) | 969(51.0)   |
|        | 여성       | 931(49.0) | 931(49.0) | 931(49.0)   |
| 연령별    | 20대 이하   | 355(18.7) | 355(18.7) | 355(18.7)   |
|        | 30대      | 344(18.1) | 344(18.1) | 344(18.1)   |
|        | 40대      | 417(21.9) | 417(21.9) | 417(21.9)   |
|        | 50대      | 452(23.8) | 452(23.8) | 452(23.8)   |
|        | 60대      | 332(17.5) | 332(17.5) | 332(17.5)   |
| 거주지역   | 서울       | 364(19.2) | 364(19.2) | 364(19.2)   |
|        | 부산/울산/경남 | 283(14.9) | 283(14.9) | 283(14.9)   |
|        | 대구/경북    | 179(9.4)  | 179(9.4)  | 179(9.4)    |
|        | 인천/경기    | 639(33.6) | 648(34.1) | 652(34.3)   |
|        | 광주/전라    | 183(9.6)  | 167(8.8)  | 174(9.2)    |
|        | 대전/세종/충청 | 188(9.9)  | 188(9.9)  | 188(9.9)    |
|        | 강원/제주    | 64(3.4)   | 71(3.7)   | 60(3.2)     |
| 동거 가족수 | 1인       | 288(15.2) | 287(15.1) | 328(17.3)   |
|        | 2인       | 400(21.1) | 408(21.5) | 415(21.8)   |
|        | 3인       | 563(29.6) | 540(28.4) | 514(27.1)   |
|        | 4인       | 553(29.1) | 559(29.4) | 519(27.3)   |
|        | 5인 이상    | 96(5.1)   | 106(5.6)  | 124(6.5)    |

주: 괄호 안은 영역당 조사대상자 1,900명 대비 비율(%임)

〈부록 표 I-1〉 계속

| 구분                      |               | 건강 및 간병     | 은퇴준비 및 사망   | 소득흐름 및 재산손해 |
|-------------------------|---------------|-------------|-------------|-------------|
| 혼인상태                    | 미혼            | 709(37.3)   | 688(36.2)   | 730(38.4)   |
|                         | 기혼            | 1,101(57.9) | 1,108(58.3) | 1,039(54.7) |
|                         | 별거 중          | 4(0.2)      | 4(0.2)      | 6(0.3)      |
|                         | 이혼            | 64(3.4)     | 74(3.9)     | 98(5.2)     |
|                         | 사별            | 14(0.7)     | 16(0.8)     | 14(0.7)     |
|                         | 무응답           | 8(0.4)      | 10(0.5)     | 13(0.7)     |
| 종사상<br>지위               | 상용근로자         | 1,197(63.0) | 1,177(61.9) | 1,168(61.5) |
|                         | 임시, 일용근로자     | 134(7.1)    | 144(7.6)    | 145(7.6)    |
|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53(2.8)     | 49(2.6)     | 34(1.8)     |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118(6.2)    | 100(5.3)    | 121(6.4)    |
|                         | 무급가족 종사자      | 14(0.7)     | 9(0.5)      | 14(0.7)     |
|                         | 기타 종사자        | 27(1.4)     | 26(1.4)     | 39(2.1)     |
|                         | 주부            | 140(7.4)    | 152(8.0)    | 147(7.7)    |
|                         | 기타            | 217(11.4)   | 243(12.8)   | 232(12.2)   |
| 교육<br>수준                | 중학교 이하        | 26(1.4)     | 26(1.4)     | 28(1.5)     |
|                         | 고등학교          | 335(17.6)   | 302(15.9)   | 317(16.7)   |
|                         | 대학교(4년제 미만)   | 312(16.4)   | 278(14.6)   | 299(15.7)   |
|                         | 대학교(4년제 이상)   | 1,027(54.1) | 1,058(55.7) | 1,017(53.5) |
|                         | 대학원 석사        | 165(8.7)    | 195(10.3)   | 204(10.7)   |
|                         | 대학원 박사 이상     | 35(1.8)     | 41(2.2)     | 35(1.8)     |
| 월평균<br>개인<br>소득<br>(세후) | 200만 원 미만     | 403(21.2)   | 402(21.2)   | 454(23.9)   |
|                         | 200~300만 원 미만 | 455(23.9)   | 498(26.2)   | 464(24.4)   |
|                         | 300~400만 원 미만 | 399(21.0)   | 381(20.1)   | 365(19.2)   |
|                         | 400~500만 원 미만 | 269(14.2)   | 243(12.8)   | 257(13.5)   |
|                         | 500~600만 원 미만 | 160(8.4)    | 146(7.7)    | 139(7.3)    |
|                         | 600~700만 원 미만 | 80(4.2)     | 93(4.9)     | 89(4.7)     |
|                         | 700~800만 원 미만 | 55(2.9)     | 65(3.4)     | 58(3.1)     |
|                         | 800만 원 이상     | 79(4.2)     | 72(3.8)     | 74(3.9)     |

주: 괄호 안은 영역당 조사대상자 1,900명 대비 비율(%)임

## 1. 위험태도

### 가. 위험태도 측정

위험태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질문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대규모 패널조사에는 유럽의 GPS(The Global Preferences Survey), 독일 SOEP(German Socio-Economic Panel) 등이 있다.

76개국을 대표하는 8만여 명의 표본의 위험선호, 시간선호, 상호호혜(Reciprocity), 이타성, 신뢰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GPS의 경우, 위험선호도는 정성 질문과 위험선호와 관련된 여러 개의 정량적 질문을 통해 도출한다.<sup>19)</sup> 먼저 “당신은 대체로 얼마나 위험을 감수 또는 꺼립니까?”라는 정성 질문에 1부터 10 사이의 숫자로 정도를 선택하도록 한다. 정량적 선택은 5개의 양자 선택으로 구성되는데, 응답자에게 같은 확률로  $x$  또는 0에 당첨될 수 있는 복권과 확실한 금액  $y$  중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을 하고, 답변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여 응답자의 확실성 증가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SOEP는 독일경제연구소(DIW; The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가 1984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독일 거주 성인의 패널 설문조사이다.<sup>20)</sup> 약 15,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종단 설문(Longitudinal survey)으로 서독의 경우는 1984년부터 2021년까지, 동독의 경우는 1990년부터 2021년까지의 가구를 포함한다. 설문조사 항목은 인구, 근로 및 고용, 소득, 세금, 사회보장, 가족 및 사회관계, 건강, 주거, 편의시설, 교육, 태도, 가치, 성격, 시간 사용, 이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태도, 가치, 성격 관련 항목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위험감수도를 10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위험감수

19) 브리크 행동 및 불평등 연구소 홈페이지

20) Research Data Center SOEP 홈페이지

도와 함께 운전, 투자, 여가활동 및 스포츠, 직업 전망, 건강, 외국인에 대한 신뢰 등 여섯 가지 세부 분야에서의 위험감수도를 묻는다.

〈부록 표 II-1〉 SOEP 위험태도 관련 질문

| 구분    | 질문  |
|-------|---|
| 일반    | 당신은 대체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
| 세부 영역 | 다음 영역에 대해서 위험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       | • 운전할 때                                       |
|       | • 금융투자  |
|       | • 여가 활동 및 스포츠                                 |
|       | • 직업 전망                                       |
|       | • 건강  |
|       | • 외국인에 대한 신뢰                                  |

자료: DIW(2022)

미국 HRS(Health and Retirement Study)는 University of Michigan이 국립노화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n aging)와 사회보장국(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지원을 받아 조사하는 종단 패널조사로 미국 내 2만여 명의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sup>21)</sup> 인구학적 정보, 건강상태,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서비스 비용, 신체기능장애, 인지능력, 기대, 가족구조, 주거, 자산 및 부채, 소득, 직업, 은퇴 및 연금, 사회보장, 장애, 보험, 결혼상태, 인터넷 사용, 심리 및 사회적 관계 등 광범위한 내용을 조사하는데, 2012년에 가상의 투자 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전망이론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에는 위험회피와 관련된 설문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Charness et al.(2020) 네덜란드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험실에서의 위험태도 측정치가 실험실에서의 재무적 위험행동과 실험실 밖에서의 위험 관련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예측력을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위험 태도를 5가지 지표로 측정하였는데, 응답자가 판단하여 답변하는 자기보고식 측정, 투자 선택, 순차 복권 선택, 짝으로 구성된 복권 선택, 짝으로 구성된 복수 복권 선택 등으로 측정하였다.

21) Health and Retirement Study 홈페이지

〈부록 표 II-2〉 위험태도 측정사례

| 구분               | 측정방법   | 선행연구  |
|------------------|--|---|
| 자가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10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li> <li>일반적인 위험, 특정 상황에서의 위험을 묻기도 함</li> </ul>   | Dohmen et al.(2011)                                 |
| 투자선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험 참여자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 참여자는 50%의 확률로 주어진 금액의 2.5배를 상금으로 주는 복권을 얼마만큼 살 것인지 선택</li> <li>복권에 투자하지 않은 금액은 참여자가 가짐</li> </ul>   | Gneezy and Potters(1997), Charness and Gneezy(2010) |
| 순차 복권선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 확률로 다른 금액을 지불하는 복권들 중에 선택</li> <li>e.g. 7유로를 언제나 제공하는 복권부터 50%의 확률로 0.5유로, 50%의 확률로 17.5유로를 제공하는 복권까지 6가지 복권들을 보여주고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li> </ul>  | Eckel and Grossman(2008)                            |
| 짝으로 구성된 복권 선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복권과 B복권을 보여주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li> <li>실험 참여자는 10개의 순차적인 선택을 하게 됨</li> </ul>   | Holt and Laury(2002)                                |
| 짝으로 구성된 복수 복권 선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개의 순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2개의 목록으로 구성</li> <li>첫 번째 목록은 30%의 확률로 8유로, 70%의 확률로 2유로를 주는 A복권과 90%확률로 1유로, 10%의 확률로 13.6유로부터 340유로까지 늘어나는 14개의 복권</li> <li>두 번째 목록은 90%의 확률로 8유로, 10%의 확률로 6유로를 주는 A복권과 30%확률로 1유로, 70%의 확률로 10.8유로부터 26유로까지 늘어나는 14개의 복권</li> </ul> | Tanaka et al.(2010)                                 |

자료: Charness et al.(2020) 내용을 표로 정리함

먼저 100유로를 3가지 프로젝트에 배분하는 자산배분 과업, 5가지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업, 담보대출 관련 과업 등을 통해 실험실에서의 재무결정 행동을 측정하였다. 현장에서의 행동으로는 저축 행동, 위험자산 투자, 부동산 소유, 저축성보험 가입, 건강보험 가입, 자영업자 여부 등 6가지 행동을 위험태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가보고를 제외한 4개의 위험태도 측정치 간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2)</sup> 다음으로 대부분의 위험태도 측정치는 실험실에서의 재무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배분과 담보대출 행동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위험태도 측정치가 설명력을 가졌으나, 보험 관련 행동은 짝으로 구성된 복권 선택으로 측정한 위험태도만이 설명력을 보였다.

22) 이 측정치들은 선택한 결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므로 유인이 제공된 위험태도 측정치(Incentivized measure of risk attitude)라고 부르기도 함

## 나. 위험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Dohmen et al.(2011)은 2004년 SOEP에서 추출한 22,000여 명의 위험감수 정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성, 연령, 키, 부모의 교육 수준 등이 위험감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위험을 더 감수하고, 연령이 적을수록, 키가 클수록, 아버지가 독일에서 고등학교 졸업 증명에 해당하는 Abitur를 마친 경우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유한 사람일수록 위험을 더 감수하고,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실직한 경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위험을 덜 감수하는 것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위험을 더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ung and Hanna(1996)는 미국 Survey of consumer finance 자료를 사용하여 가계의 위험 감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는데, 소득, 자산, 예상 은퇴시기까지 남은 기간, 교육 수준, 인종, 자영업 여부, 혼인상태 등이 위험 감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위험태도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

60~70년대 이론 논문들은 위험기피도, 상속 동기, 소득의 원천, 보험료 또는 타 자산들의 수익성이 보험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였다(Hwang 2024). Mossin(1968)은 주어진 위험하에서 보험보장을 선택하는 합리적 행동을 분석하였는데, 개인의 위험회피도가 감소하면, 자신의 부에 더 많은 위험을 취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다시 말해 그의 모형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보험가입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부(-)일 것으로 예측했다.

Eling et al.(2021)은 위험태도와 보험가입 간의 관계를 생명보험과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이들은 SHARE(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의 14개국, 50세 이상 성인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재무위험 감수 용의도가 높을수록 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종신보험이 정기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전적인 기대효용가설이 예측하는 방향과는 반대의 결과인데, 저자들은 대다수 사람들이 생명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위험전가 기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현상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 2. 조사결과: 위험태도 및 위험행동

### 가.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에 대한 태도에 관한 설문으로 우선 응답자 본인의 위험감수 성향에 대해서 질의하였고, 6점 척도 기준으로 위험감수 성향을 구분하였다. 1점에서 6점으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위험에 대한 감수도가 높아지는 것(위험회피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가정해 응답받았다. 응답자 전체의 6점 척도 기준의 평균 점수는 3.07이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위험감수 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대의 위험감수 성향이 가장 낮았다. 60대의 위험감수 성향은 50대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연령대별 위험감수 성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부록 표 II-3〉 위험에 대한 감수 성향

(단위: %, 명)

| 구분  | 1            | 2    | 3    | 4    | 5    | 6    | 평균점수 | 응답자 수       |       |
|-----|--------------|------|------|------|------|------|------|-------------|-------|
|     | -----> 위험 감수 |      |      |      |      |      |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8.1  | 29.1 | 28.0 | 24.1 | 9.4  | 1.3  | 3.02        | 1,065 |
|     | 30대          | 8.9  | 32.9 | 25.9 | 23.2 | 7.6  | 1.6  | 2.92        | 1,032 |
|     | 40대          | 6.0  | 30.2 | 25.3 | 28.1 | 9.4  | 1.0  | 3.08        | 1,251 |
|     | 50대          | 6.3  | 25.6 | 25.4 | 31.2 | 10.2 | 1.3  | <b>3.17</b> | 1,356 |
|     | 60대          | 7.6  | 25.2 | 26.2 | 28.8 | 9.8  | 2.3  | 3.15        | 996   |
| 전체  | 7.3          | 28.5 | 26.1 | 27.3 | 9.3  | 1.5  | 3.07 | 5,7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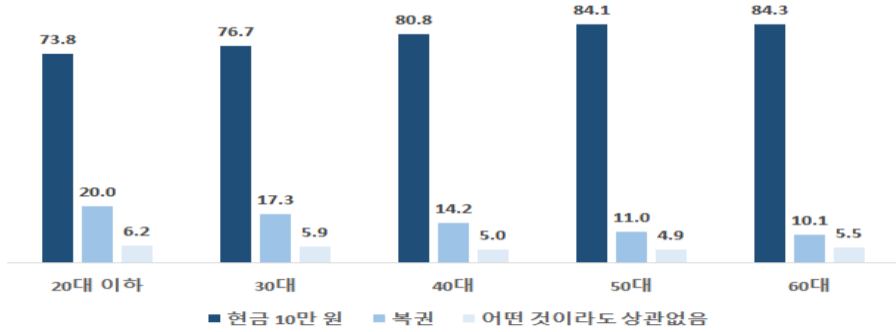
주: 1) 1(어떠한 위험도 회피함)에서 6(어떠한 위험도 감수함)으로 성향점수가 상승할수록 어떠한 위험도 감수함(회피함) 성향이 높아짐(낮아짐)을 의미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

2) 평균차이 검정 F-값: 8.73\*\*\*

현금 혹은 복권 선택 성향으로 응답자의 위험회피 성향을 조사하였는데, 응답자의 84.1%가 50%의 확률로 15만 원 그리고 50%의 확률로 5만 원을 지급하는 복권보다 현금 10만 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 미만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복권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현금의 선택 비율이 복권 선택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상 현금 혹은 복권선택 성향으로 응답자의 위험회피 성향을 확인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회피 성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그림 II-1〉 연령대별 현금 혹은 복권 선택 성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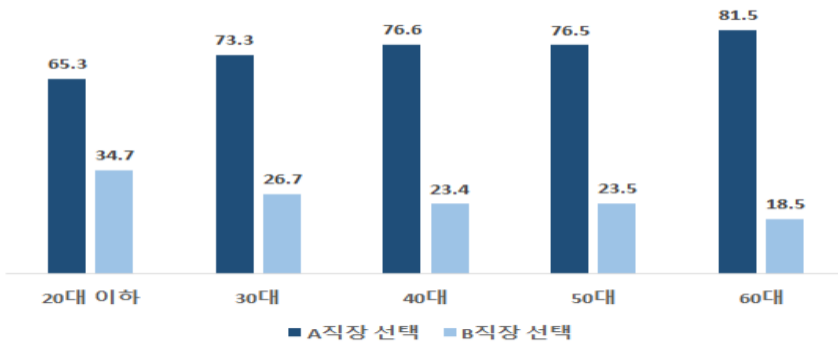


주: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음. 다음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① 현금 10만 원 ② 복권(50%의 확률로 15만 원, 50%의 확률로 5만 원을 주는 복권) ③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음

응답자의 위험회피 성향을 확인하는 다른 방식으로서 직장 선택 성향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두 직장의 선택 성향을 설문하였는데, A직장은 현재 받고 있는 소득수준을 계속 보장하고, B직장은 50% 확률로 소득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 수 있지만, 50% 확률로 현재 소득의 2/3수준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4.7%가 A직장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B직장보다 A직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부록 그림 II-2〉 연령대별 직장선택 성향

(단위: %)



주: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가족 중 당신만 유일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두 직장 중 하나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직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A직장은 현재 받고 있는 소득수준을 계속 보장하며, B직장은 50% 확률로 소득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 수 있지만, 50% 확률로 현재 소득의 2/3수준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함



다음으로 위험회피도를 가늠해 보기 위해, 이직상황을 가정한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가 외벌이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두 직장 중 하나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직장을 선택하는 3문항을 통해 회피도를 측정하였고, 각 문항의 답변을 이용하여 위험회피도 지수를 계산하였다. 등 지수는 1에서 4의 값을 가지며 숫자가 커질수록 위험회피도는 낮아진다.<sup>23)</sup>

연령대별 위험감수 성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60대의 위험회피도가 가장 높았으며, 20대의 위험회피도가 가장 낮았다.

〈부록 표 II-4〉 위험회피 성향

(단위: %, 명)

| 구분  | 1                  | 2    | 3    | 4    | 평균점수 | 응답자 수 |       |
|-----|--------------------|------|------|------|------|-------|-------|
|     | ←----- 위험회피 -----> |      |      |      |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38.8 | 26.2 | 25.5 | 9.6  | 2.06  | 1,065 |
|     | 30대                | 49.3 | 23.8 | 17.8 | 9.0  | 1.87  | 1,032 |
|     | 40대                | 57.7 | 18.8 | 16.0 | 7.5  | 1.73  | 1,251 |
|     | 50대                | 58.0 | 19.3 | 16.5 | 6.3  | 1.71  | 1,356 |
|     | 60대                | 65.6 | 15.8 | 11.6 | 7.1  | 1.60  | 996   |
| 전체  | 54.1               | 20.7 | 17.4 | 7.8  | 1.79 | 5,700 |       |

주: 1) 3문항의 이직 답변을 이용하여 1부터 4까지의 값을 갖는 변수를 생성하였는데, 1에서 4로 갈수록 위험회피도가 낮아짐

2) 평균차이 검정 F-값: 33.76\*\*\*

## 나. 위험성향 관련 행동

다음으로 위험행동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응답자의 흡연 성향을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20.0%는 현재 흡연자라고 응답했으며, 22.0%는 과거에 흡연자였으나, 현재 담

23) A7. A직장은 현재 받고 있는 소득수준을 계속 보장합니다. B직장은 50% 확률로 소득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 수 있지만, 50% 확률로 현재 소득의 2/3 수준으로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개 선택]

① A직장 선택 ② B직장 선택

A7-1. (A7=1) A직장은 현재 받고 있는 소득수준을 계속 보장합니다. B직장은 50% 확률로 소득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 수 있지만, 50% 확률로 현재 소득의 4/5 수준으로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개 선택]

① A직장 선택 ② B직장 선택

A7-2. (A7=2) A직장은 현재 받고 있는 소득수준을 계속 보장합니다. B직장은 50% 확률로 소득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 수 있지만, 50% 확률로 현재 소득의 1/2 수준으로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개 선택]

① A직장 선택 ② B직장 선택

배를 끊었다고 응답했고, 58.0%는 현재까지 담배를 피운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 20대 이하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담배를 피운적이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II-5〉 흡연 성향

(단위: %, 명)

| 구분  |        | 나는 현재 흡연자이다 | 나는 과거에 흡연자였으나, 담배를 끊었다 | 나는 담배를 피운적이 없다 | 응답자 수 |
|-----|--------|-------------|------------------------|----------------|-------|
| 연령대 | 20대 이하 | 17.7        | 13.2                   | <b>69.1</b>    | 1,065 |
|     | 30대    | 20.1        | 19.4                   | 60.6           | 1,032 |
|     | 40대    | <b>22.9</b> | 21.8                   | 55.2           | 1,251 |
|     | 50대    | 22.2        | 24.4                   | 53.4           | 1,356 |
|     | 60대    | 15.9        | <b>31.1</b>            | 53.0           | 996   |
| 전체  |        | 20.0        | 22.0                   | 58.0           | 5,700 |

주: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음. 흡연 상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가까운 문장을 선택해 주십시오

위험행동 성향으로 주식투자 경험도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58.4%는 현재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20.4%는 과거에 주식에 투자한 적이 있지만 현재 더 이상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해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21.2%)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 종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30대, 40대 및 50대에서 주식투자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II-6〉 주식투자 경험

(단위: %, 명)

| 구분  |        | 나는 현재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 나는 주식에 투자한 적이 있으나,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 | 나는 주식에 투자한 적이 없다 | 응답자 수 |
|-----|--------|-------------------|----------------------------------|------------------|-------|
| 연령대 | 20대 이하 | 53.2              | 21.0                             | <b>25.7</b>      | 1,065 |
|     | 30대    | 60.9              | 20.2                             | 19.0             | 1,032 |
|     | 40대    | <b>62.2</b>       | 17.9                             | 19.9             | 1,251 |
|     | 50대    | 60.6              | 20.0                             | 19.4             | 1,356 |
|     | 60대    | 53.8              | <b>23.6</b>                      | 22.6             | 996   |
| 전체  |        | 58.4              | 20.4                             | 21.2             | 5,700 |

주: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음. 주식투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가까운 문장을 선택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투자 경험을 조사해 응답자의 위험행동 성향을 파악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65.9%가 가상자산에 투자한 적이 없다고 응답해 가상자산 투자 경험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II-7〉 가상자산 투자 경험

(단위: %, 명)

| 구분  | 나는 현재 가상자산에 투자 중이다 | 나는 가상자산에 투자한 적이 있으나,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 | 나는 가상자산에 투자한 적이 없다 | 응답자 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13.9                               | 24.2               | 61.9        | 1,065 |
|     | 30대                | 18.7                               | <b>26.9</b>        | 54.4        | 1,032 |
|     | 40대                | <b>19.3</b>                        | 19.3               | 61.4        | 1,251 |
|     | 50대                | 13.3                               | 15.2               | 71.5        | 1,356 |
|     | 60대                | 9.0                                | 10.7               | <b>80.2</b> | 996   |
| 전체  | 15.0               | 19.1                               | 65.9               | 5,700       |       |

주: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음.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문장을 선택해 주십시오

## 1. 은퇴여부 및 은퇴사유

〈부록 표 III-1〉 연령대별 은퇴 여부

(단위: %, 명)

| 구분  |        | 은퇴하였다 | 은퇴하지 않았다 | 응답자 수 |
|-----|--------|-------|----------|-------|
| 연령대 | 20대 이하 | 0.0   | 100.0    | 355   |
|     | 30대    | 1.2   | 98.8     | 344   |
|     | 40대    | 1.9   | 98.1     | 417   |
|     | 50대    | 10.6  | 89.4     | 452   |
|     | 60대    | 51.2  | 48.8     | 332   |
| 전체  |        | 12.1  | 87.9     | 1,900 |

〈부록 표 III-2〉 은퇴사유

(단위: %, 명)

| 구분                    | 비율          |
|-----------------------|-------------|
| 고령/질병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    | 12.2        |
| 가족의 수발 및 돌봄           | 6.5         |
| 다른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서       | 3.0         |
| 하는 일이 싫어지거나 보람을 못 느껴서 | 4.3         |
| 직장 상사 등과의 관계 악화       | 3.9         |
| 연금 등 은퇴 후 생활비의 여유 확보  | 1.3         |
| 정년                    | <b>33.0</b> |
| 조기/ 명예퇴직 등            | 18.7        |
| 노후 여가생활을 보내기 위해       | 2.2         |
| 가족의 수발 및 돌봄           | 6.5         |
| 사업 악화 및 일거리 없음        | 7.0         |
| 손자녀 돌봄                | 0.4         |
| 본인의 결혼 및 육아           | 7.4         |
| 사례 수                  | 230         |

## 2. 은퇴생활

〈부록 표 III-3〉 은퇴 후 소득수준

(단위: %, 명)

| 구분            | 비율          |
|---------------|-------------|
| 10% 이내        | 10.4        |
| 10% 이상~20% 이내 | 12.6        |
| 20% 이상~40% 이내 | 21.7        |
| 40% 이상~60% 이내 | <b>27.8</b> |
| 60% 이상~80% 이내 | 17.8        |
| 80% 이상        | 9.6         |
| 평균            | 40.2        |
| 응답자 수         | 230         |

- 주: 1) 은퇴 전 월소득과 비교된 은퇴 후 소득수준이며, 1~99% 범위에서 응답받음  
 2) 은퇴 전 월소득은 근로기간 중 평균 월 소득임

〈부록 표 III-4〉 은퇴 후 주된 소득원(다중 응답)

(단위: %, 명)

| 구분                    | 비율          |
|-----------------------|-------------|
| 국민연금                  | 34.3        |
| 퇴직연금                  | 20.9        |
| 개인연금                  | 20.0        |
| 주택연금                  | 1.7         |
| 예금·적금·저축성 보험          | 34.8        |
| 주식·채권                 | 12.2        |
| 수익증권                  | 3.5         |
| 부동산                   | 13.0        |
| 정부나 사회단체 보조금          | 2.6         |
| 유산                    | 1.3         |
| 배우자의 소득               | <b>40.9</b> |
| 자식 및 친척에게 받는 생활비 및 용돈 | 8.7         |
| 근로활동                  | 18.7        |
| 기타                    | 7.0         |
| 응답자 수                 | 230         |

- 주: 1)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등이 포함됨  
 2) 수익증권에는 펀드 등 간접투자가 포함됨

〈표 부록 Ⅲ-5〉 은퇴 후 주된 소득원별 소득 구성비

(단위: %, 명)

| 구분                    | 비율          |
|-----------------------|-------------|
| 국민연금                  | 16.8        |
| 퇴직연금                  | 14.4        |
| 개인연금                  | 4.2         |
| 주택연금                  | 0.7         |
| 예금·적금·저축성 보험          | 10.1        |
| 주식·채권                 | 3.3         |
| 수익증권                  | 0.4         |
| 부동산                   | 5.9         |
| 정부나 사회단체 보조금          | 1.0         |
| 유산                    | 0.6         |
| 배우자의 소득               | <b>28.8</b> |
| 자식 및 친척에게 받는 생활비 및 용돈 | 2.8         |
| 근로활동                  | 8.1         |
| 기타                    | 3.1         |
| 응답자 수                 | 230         |

주: 1)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등이 포함됨  
 2) 수익증권에는 펀드 등 간접투자가 포함됨

〈부록 표 Ⅲ-6〉 생활비를 고려할 때 은퇴 후 월 소득수준 정도

(단위: %, 명)

| 구분        | 비율          |
|-----------|-------------|
| 매우 부족하다   | 14.8        |
| 부족하다      | 33.9        |
| 보통이다      | <b>40.0</b> |
| 여유 있다     | 9.6         |
| 충분히 여유 있다 | 1.7         |
| 응답자 수     | 230         |

## 부록 IV

# 연령대별 자산 및 부채 현황

〈부록 표 IV-1〉 총자산 금액

(단위: %, 만 원, 명)

| 구분  | 1천만 원 이내 | 1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이상~    | 3억 원 이상~    | 5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 평균          | 응답자 수            |     |
|-----|----------|-----------|-------------|-------------|-------------|----------|-------------|-------------|------------------|-----|
|     |          | 5천만 원 이내  | 1억 원 이내     | 3억 원 이내     | 5억 원 이내     |          |             |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25.0      | <b>46.8</b> | 17.8        | 8.4         | 0.9      | 0.8         | 0.3         | 5,124.07         | 309 |
|     | 30대      | 8.0       | 20.1        | 21.5        | <b>25.7</b> | 11.3     | 10.1        | 3.3         | 20,591.17        | 274 |
|     | 40대      | 3.1       | 10.2        | 11.3        | <b>27.2</b> | 15.4     | 19.9        | 12.9        | 41,240.72        | 361 |
|     | 50대      | 3.0       | 7.7         | 7.8         | <b>22.9</b> | 15.2     | <b>22.9</b> | 20.4        | 54,874.00        | 380 |
|     | 60대      | 3.9       | 6.9         | 8.9         | 18.4        | 14.2     | 22.9        | <b>24.8</b> | <b>65,121.66</b> | 265 |
| 전체  | 8.2      | 17.7      | 13.1        | <b>20.8</b> | 11.7        | 15.8     | 12.6        | 38,170.12   | 5,700            |     |

주: 총자산에는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권리금 형태의 자산, 기타실물자산(회원권, 귀중품 등)이 포함됨

〈부록 표 IV-2〉 총자산의 구성 비율

(단위: %, 명)

| 구분  | 금융자산         | 부동산자산        | 자동차          | 권리금 형태의 자산 | 기타 실물자산 | 응답자 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b>74.68</b> | 9.99         | 5.59       | 2.31    | 7.43  | 1,065 |
|     | 30대          | <b>52.57</b> | 31.73        | 9.01       | 1.80    | 4.88  | 1,032 |
|     | 40대          | 36.48        | <b>51.62</b> | 7.33       | 1.60    | 2.97  | 1,251 |
|     | 50대          | 35.09        | <b>53.61</b> | 6.43       | 1.30    | 3.57  | 1,356 |
|     | 60대          | 34.79        | <b>54.99</b> | 5.51       | 1.48    | 3.23  | 996   |
| 전체  | <b>45.90</b> | 41.30        | 6.78         | 1.68       | 4.34    | 5,900 |       |

주: 총자산을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권리금 형태의 자산, 기타 실물자산으로 구분해 비율 합계가 100% 되도록 응답받음

〈부록 표 IV-3〉 금융자산 보유 여부

(단위: %, 명)

| 구분  | 예적금    | 개인 연금 | 저축성 보험 | 적립식 및 거치식 펀드 | 주식   | 유가 증권 |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아직 타지 않은 깃돈 | 퇴직 연금 | 기타 금융 자산 | 응답자 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94.6  | 27.0   | 26.7         | 15.3 | 55.6  | 5.4                     | 14.7  | 25.0     | 24.6  | 1,065 |
|     | 30대    | 95.9  | 46.9   | 39.6         | 20.6 | 62.5  | 6.2                     | 16.3  | 50.9     | 29.1  | 1,032 |
|     | 40대    | 94.0  | 52.5   | 44.6         | 24.7 | 63.3  | 5.0                     | 12.5  | 51.2     | 27.9  | 1,251 |
|     | 50대    | 94.2  | 54.9   | 45.6         | 20.9 | 60.2  | 4.7                     | 13.9  | 49.9     | 27.1  | 1,356 |
|     | 60대    | 93.8  | 51.1   | 39.4         | 19.0 | 53.8  | 7.8                     | 13.0  | 33.8     | 26.2  | 996   |
| 전체  | 94.5   | 47.1  | 39.7   | 20.3         | 59.3 | 5.7   | 14.0                    | 42.9  | 27.0     | 5,700 |       |

주: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모두 선택하여 응답받음

〈부록 표 IV-4〉 금융자산 구성

(단위: %, 명)

| 구분  | 예적금    | 개인 연금 | 저축성 보험 | 적립식 및 거치식 펀드 | 주식   | 유가 증권 |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아직 타지 않은 깃돈 | 퇴직 연금 | 기타 금융 자산 | 응답자 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65.7  | 4.0    | 4.7          | 1.9  | 13.1  | 0.9                     | 1.9   | 3.5      | 4.2   | 1,053 |
|     | 30대    | 54.9  | 7.2    | 6.5          | 2.5  | 14.1  | 0.6                     | 2.1   | 8.0      | 4.0   | 1,022 |
|     | 40대    | 48.3  | 8.7    | 7.3          | 2.8  | 15.6  | 0.6                     | 1.8   | 11.1     | 3.8   | 1,239 |
|     | 50대    | 46.5  | 10.8   | 7.9          | 2.6  | 14.5  | 0.4                     | 2.2   | 11.3     | 3.9   | 1,339 |
|     | 60대    | 48.0  | 12.1   | 6.5          | 2.9  | 14.6  | 0.9                     | 2.6   | 8.4      | 4.2   | 984   |
| 전체  | 52.3   | 8.6   | 6.7    | 2.5          | 14.4 | 0.7   | 2.1                     | 8.71  | 4.0      | 5,700 |       |

주: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비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응답받음



〈부록 표 IV-5〉 총부채 금액

(단위: %, 만 원, 명)

| 구분  | 0원     | 1원~<br>1천만 원<br>이내 | 1천만 원<br>이상~5<br>천만 원<br>이내 | 5천만 원<br>이상~1억<br>원 이내 | 1억 원<br>이상~3억<br>원 이내 | 3억 원<br>이상 | 평균       | 응답자 수    |       |
|-----|--------|--------------------|-----------------------------|------------------------|-----------------------|------------|----------|----------|-------|
| 연령대 | 20대 이하 | 62.5               | 20.0                        | 8.9                    | 4.4                   | 3.8        | 0.4      | 1,157.97 | 1,065 |
|     | 30대    | 39.0               | 12.4                        | 17.1                   | 9.5                   | 16.8       | 5.3      | 5,905.40 | 1,032 |
|     | 40대    | 36.0               | 6.1                         | 16.3                   | 10.5                  | 23.5       | 7.7      | 8,012.73 | 1,251 |
|     | 50대    | 36.7               | 7.1                         | 17.9                   | 12.4                  | 19.5       | 6.3      | 7,063.09 | 1,356 |
|     | 60대    | 48.0               | 7.5                         | 14.8                   | 11.4                  | 13.4       | 4.9      | 5,482.70 | 996   |
| 전체  | 43.8   | 10.3               | 15.2                        | 9.8                    | 15.9                  | 5.1        | 5,682.43 | 5,900    |       |

주: 부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외상 및 할부구입에 따른 미결제 잔액, 개인, 직장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갯돈을 난 후 낼 돈이 포함됨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 연회비       | 제공자료   |                   |
|----------|-----------|--|-------------------|
| 법인<br>회원 | ₩300,000원 | - 연구보고서<br>- 기타보고서<br>- 연속간행물<br>· 보험금융연구<br>· 보험동향<br>· 해외 보험동향<br>· KOREA INSURANCE INDUSTRY | 영문 연차보고서<br>추가 제공 |
| 특별<br>회원 | ₩150,000원 |  |                   |
| 개인<br>회원 | ₩150,000원 |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 | 저자약력

**오 병국** Texas A&M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bkoh@kiri.or.kr

**변혜원**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hw.byun@kiri.or.kr

**이소양** 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 / 연구원  
E-mail : lishaoyang@kiri.or.kr

연구보고서 2024-05

### 2023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연령대별 위험관리

발행일 2024년 3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고려씨엔피

ISBN 979-11-93021-36-1  
979-11-85691-50-3(세트)

(정가 10,000원)